

인천광역시 외국인 유입 인구 분석

인천광역시에 오는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어디로 유입되고 있을까?
분석 결과를 알아보자
(* 2015년 1월~8월 분석 기준)

중구



연안부두/
월미도 유람선

86% 중국인
유입인구

중국인 유입인구 비율 매우 높음

- 연안부두 유람선 중국인 비율 : 88.5%
- 월미도 유람선 중국인 비율 : 75%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4배증가 이탈리아
유입인구

이탈리아 유입인구 급증

- 7,8월 이탈리아 국적 유입인구 급증
- 전월(6월) 대비 4배 증가

연수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71개국 다양한
유입국적

다양한 국적 외국인 유입

- 1~8월 동안 71개 국적의 외국인 유입
- 월평균 47개 국적 외국인 유입

남동구



소래포구

66% 중국인
유입감소

중국인 유입인구 감소

- 6월 중국인 유입인구 66% 감소
(전월 5월 대비 감소비율)

강화도



나들길
(1~8코스)

1/10 낮은
유입량

평균 1/10 수준의 외국인 유입

- 분석 대상 6개 관광지 평균 유입량의
1/10에 그침

언제?

4월

4월 외국인 인구 유입량은 195,536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 달에 해당한다.
월별 추이는 4~5월까지 증가 6월 급하락,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

연수구
송도 1동

송도 1동 외국인 인구 유입량은 149,84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 행정동이다.
송도 1동 이후로는 송도 2동 > 중구 용유동 >
계양구 계양1동 > 중구 선포동이 유입량 많다.

국적?

47%
중국인

인천에 유입된 외국인 국적 중
568,524명은 중국인으로
1~8월 동안 외국인 유입인구 중
47%가 중국 국적으로 가장 많다.

인천광역시 주요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 2015년 1월~8월 인천광역시 내 주요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데이터

2. 분석 방법

- 월별 유입인구 추이 비교
- 국적별 유입인구 비교
 - 유입인구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3. 분석 목차

- 관광지별 월별 분석, 국적별 분석
 - 1)종구 연안부두 유람선 2)종구 월미도 유람선 3)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4)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5)강화도 나들길 6)남동구 소래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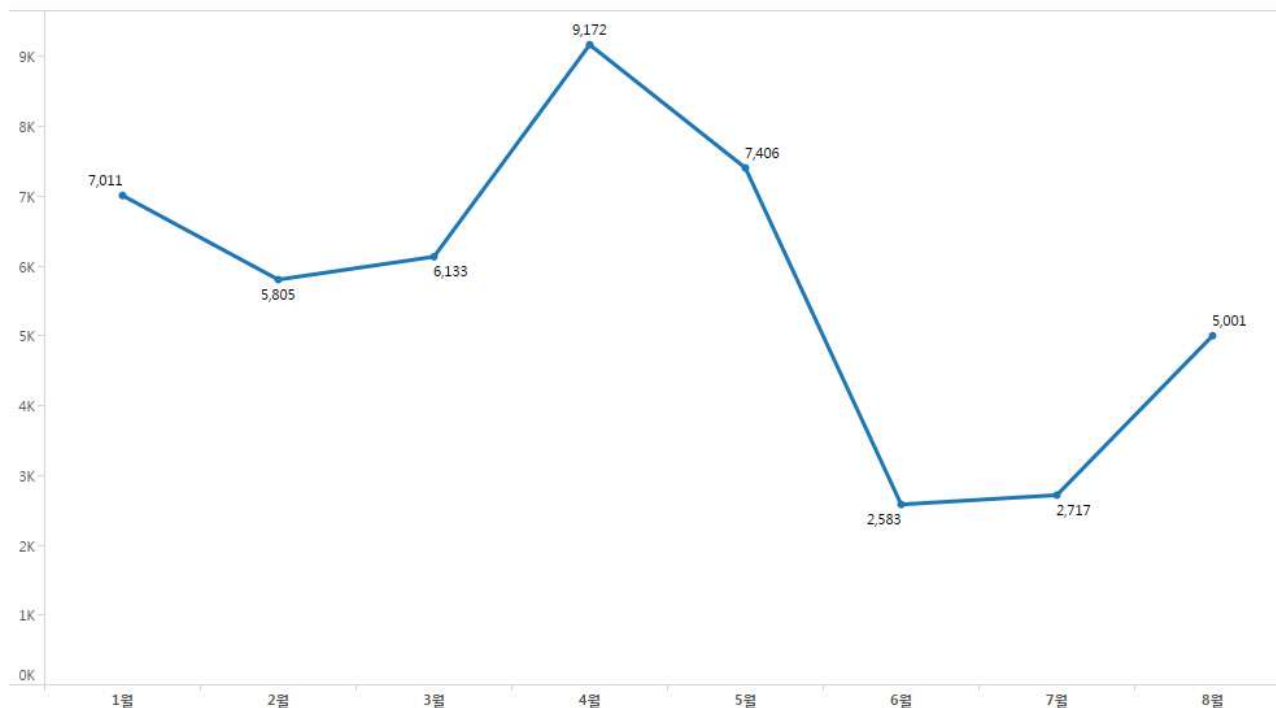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 2015년 1월~8월,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에서 2월 사이 소폭 하락하나, 2월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해 4월에 전체 기간 중 20%에 이르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됨.
- 4월 이후의 경향은 4월을 기점으로 6월까지 급락, 6월 이후 8월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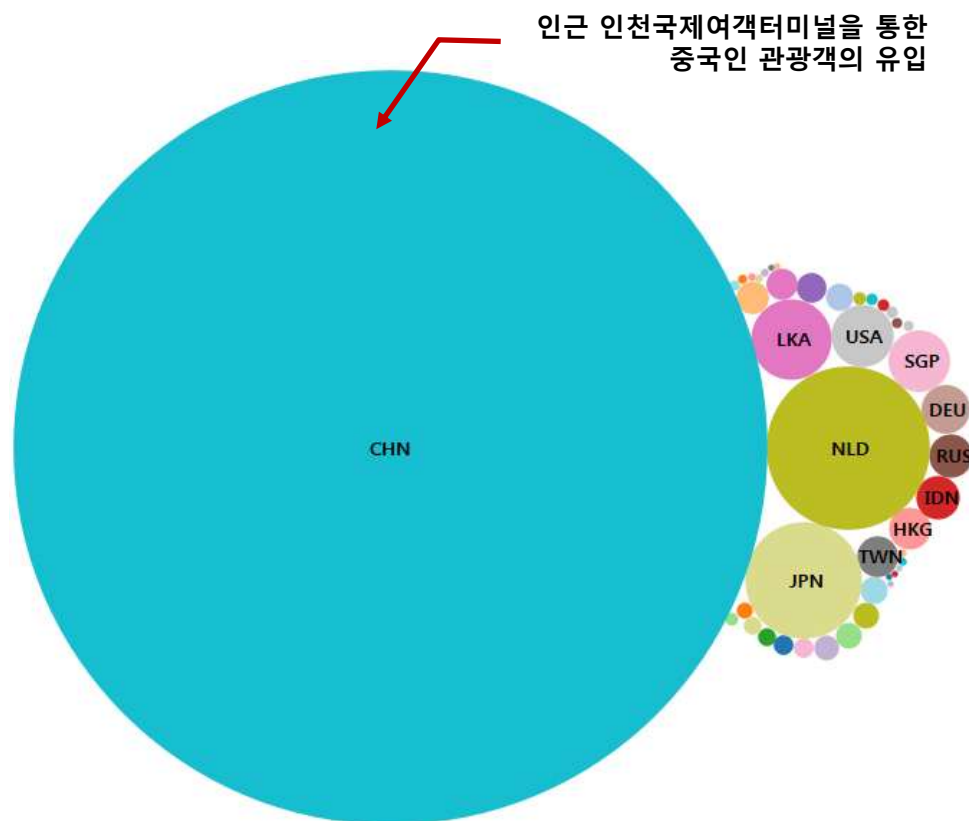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중구_연안부두 유람선 외국인 유입인구(명)	7011.0	5805.1	6133.2	9171.5	7405.7	2583.4	2717.4	5001.0	45828.3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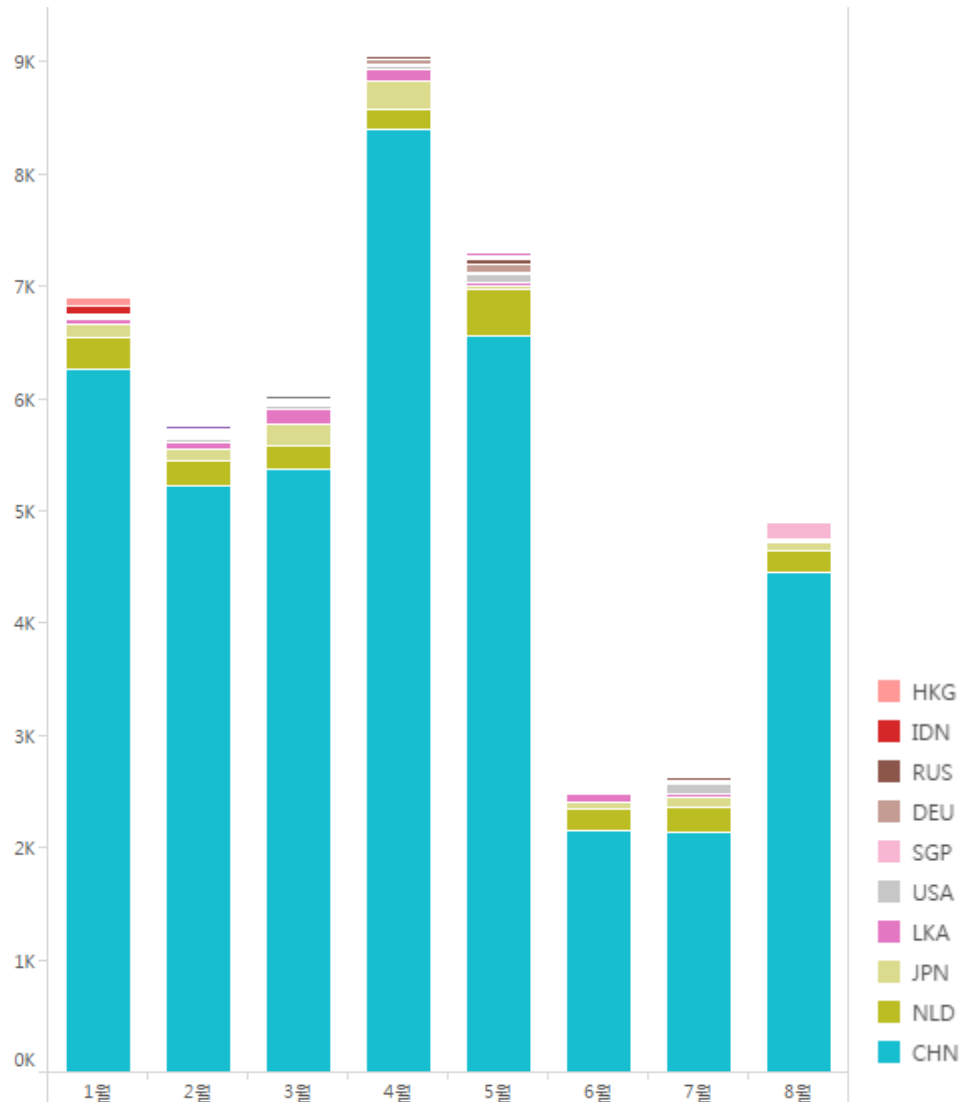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44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유입된 국적은 중국>네덜란드>일본>스리랑카>미국 순.
- 특히 중국은 전체 중 88.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40543.1	20	인도(IND)	28.1
2	네덜란드(NLD)	1904.5	21	프랑스(FRA)	28.0
3	일본(JPN)	968.3	22	말레이시아(MYS)	24.4
4	스리랑카(LKA)	461.8	23	캐나다(CAN)	23.1
5	미국(USA)	276.4	24	스웨덴(SWE)	18.5
6	싱가포르(SGP)	271.3	25	뉴질랜드(NZL)	12.5
7	독일(DEU)	169.6	26	불가리아(BGR)	12.2
8	러시아(RUS)	139.4	27	이탈리아(ITA)	11.0
9	인도네시아(IDN)	135.0	28	폴란드(POL)	10.6
10	홍콩(HKG)	125.1	29	에스토니아(EST)	9.9
11	대만(TWN)	119.3	30	이스라엘(ISR)	9.3
12	오스트레일리아(AUS)	75.8	31	아랍에미리트(ARE)	9.3
13	노르웨이(NOR)	69.7	32	룩셈부르크(LUX)	7.8
14	태국(타이,THA)	63.4	33	루마니아(ROU)	6.1
15	그리스(GRC)	56.5	34	핀란드(FIN)	4.7
16	필리핀(PHL)	53.4	35	카자흐스탄(KAZ)	4.7
17	터키(TUR)	50.4	36	브라질(BRA)	4.7
18	베트남(VNM)	47.8	37	스위스(CHE)	4.6
19	영국(GBR)	44.2	38	오스트리아(AUT)	4.6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 평균 21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됨.
- 매달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의 비중은 월 평균 87.2%으로 매우 압도적임.
- 2위는 3~4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네덜란드로 나타남.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1월 인도네시아, 5월 독일, 2~4, 6월 스리랑카, 7월 미국, 8월 싱가포르 등의 국적 외국인 유입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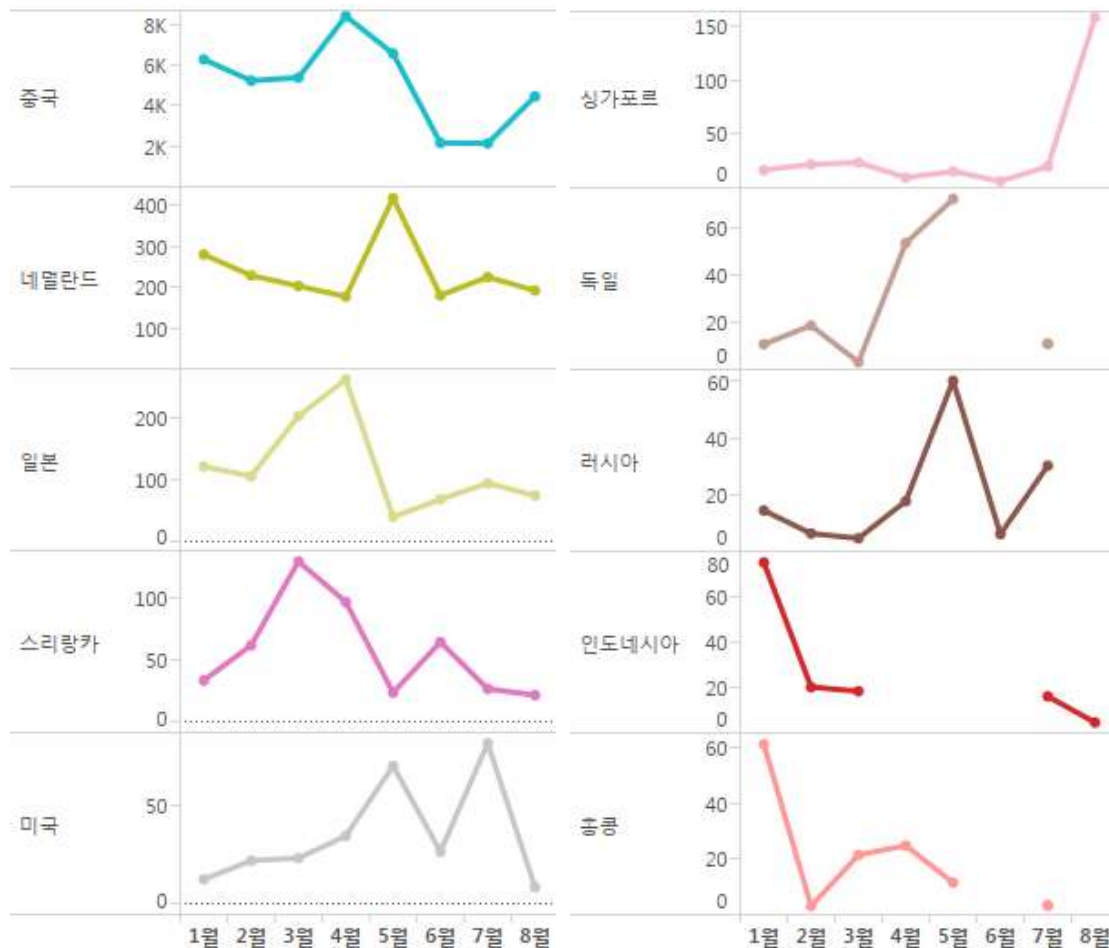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6267.3	중국 (CHN)	5218.5	중국 (CHN)	5370.5	중국 (CHN)	8392.7	중국 (CHN)	6552.1	중국 (CHN)	2158.4	중국 (CHN)	2134.6	중국 (CHN)	4449.0
2	네덜란드 (NLD)	280.3	네덜란드 (NLD)	228.7	일본 (JPN)	203.8	일본 (JPN)	263.6	네덜란드 (NLD)	418.8	네덜란드 (NLD)	179.9	네덜란드 (NLD)	225.1	네덜란드 (NLD)	191.9
3	일본 (JPN)	121.2	일본 (JPN)	105.6	네덜란드 (NLD)	203.0	네덜란드 (NLD)	176.9	독일 (DEU)	72.4	일본 (JPN)	67.7	일본 (JPN)	93.7	싱가포르 (SGP)	158.8
4	인도네시아 (IDN)	75.4	스리랑카 (LKA)	62.3	스리랑카 (LKA)	130.2	스리랑카 (LKA)	97.4	미국 (USA)	69.5	스리랑카 (LKA)	64.9	미국 (USA)	80.9	일본 (JPN)	73.8
5	홍콩 (HKG)	61.0	싱가포르 (SGP)	21.9	싱가포르 (SGP)	23.5	독일 (DEU)	53.7	러시아 (RUS)	60.2	미국 (USA)	26.4	러시아 (RUS)	30.2	대만 (TWN)	31.4
6	스리랑카 (LKA)	34.0	미국 (USA)	21.8	미국 (USA)	23.0	미국 (USA)	34.2	일본 (JPN)	38.9	오스트레일리아 (AUS)	19.7	스리랑카 (LKA)	27.0	필리핀 (PHL)	29.9
7	베트남 (VNM)	27.5	인도네시아 (IDN)	20.3	대만 (TWN)	23.0	홍콩 (HKG)	24.8	노르웨이 (NOR)	34.5	스웨덴 (SWE)	9.3	싱가포르 (SGP)	19.9	스리랑카 (LKA)	22.0
8	대만 (TWN)	20.0	독일 (DEU)	18.7	영국 (GBR)	22.6	오스트레일리아 (AUS)	22.5	스리랑카 (LKA)	24.0	인도 (IND)	8.1	말레이시아 (MYS)	16.6	그리스 (GRC)	13.2
9	태국 (타이, THA)	18.5	태국 (타이, THA)	18.7	오스트레일리아 (AUS)	21.5	러시아 (RUS)	17.7	싱가포르 (SGP)	15.2	대만 (TWN)	8.1	인도네시아 (IDN)	16.2	미국 (USA)	8.4
10	싱가포르 (SGP)	16.4	그리스 (GRC)	15.6	홍콩 (HKG)	21.4	싱가포르 (SGP)	9.6	프랑스 (FRA)	15.2	러시아 (RUS)	6.1	터키 (TUR)	16.0	인도네시아 (IDN)	4.6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중국, 네덜란드, 일본, 스리랑카의 경우 상반기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다 5·6월을 기점으로 하락함. 그 이후 중국은 다시 증가, 네덜란드, 일본은 일정수준 유지, 스리랑카는 하락하는 각기 다른 추세를 보임.
- 싱가포르의 경우 1~7월 유입량이 매우 작다가, 8월 급증함.(전월 대비 8배 증가)
- 전체 유입규모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매달 유입되지 않은 국가로 독일, 인도네시아, 홍콩을 확인 할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기준년월/ 국적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6267.3	5218.5	5370.5	8392.7	6552.1	2158.4	2134.6	4449.0
네덜란드(NLD)	280.3	228.7	203.0	176.9	418.8	179.9	225.1	191.9
일본(JPN)	121.2	105.6	203.8	263.6	38.9	67.7	93.7	73.8
스리랑카(LKA)	34.0	62.3	130.2	97.4	24.0	64.9	27.0	22.0
미국(USA)	12.3	21.8	23.0	34.2	69.5	26.4	80.9	8.4
싱가포르(SGP)	16.4	21.9	23.5	9.6	15.2	6.1	19.9	158.8
독일(DEU)	10.8	18.7	3.1	53.7	72.4	-	10.9	-
러시아(RUS)	14.4	6.3	4.6	17.7	60.2	6.1	30.2	-
인도네시아(IND)	6.2	-	-	4.7	9.2	8.1	-	-
홍콩(HKG)	61.0	3.1	21.4	24.8	11.5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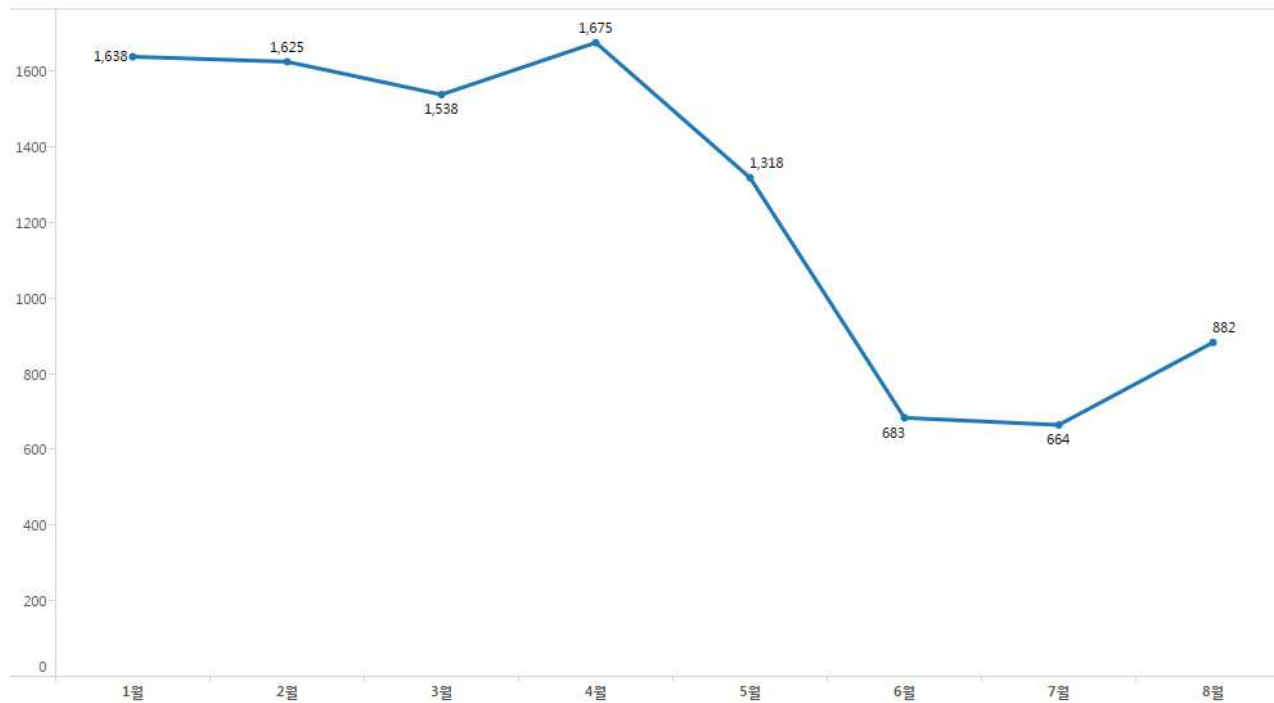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2. 중구, 월미도 유람선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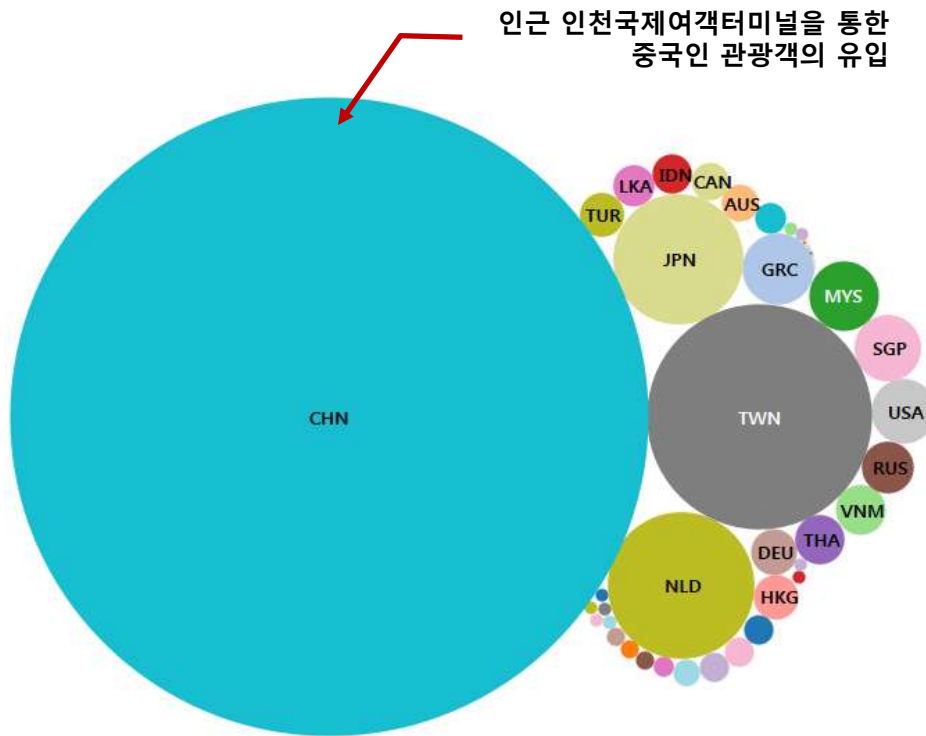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중구 월미도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4월까지 1천 6백 내외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4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급격하게 하락함. 특히, 6월의 경우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 7월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중구_월미도 유람선 외국인 유입인구(명)	1637.9	1624.6	1537.8	1675.0	1317.8	683.4	664.5	882.5	10023.3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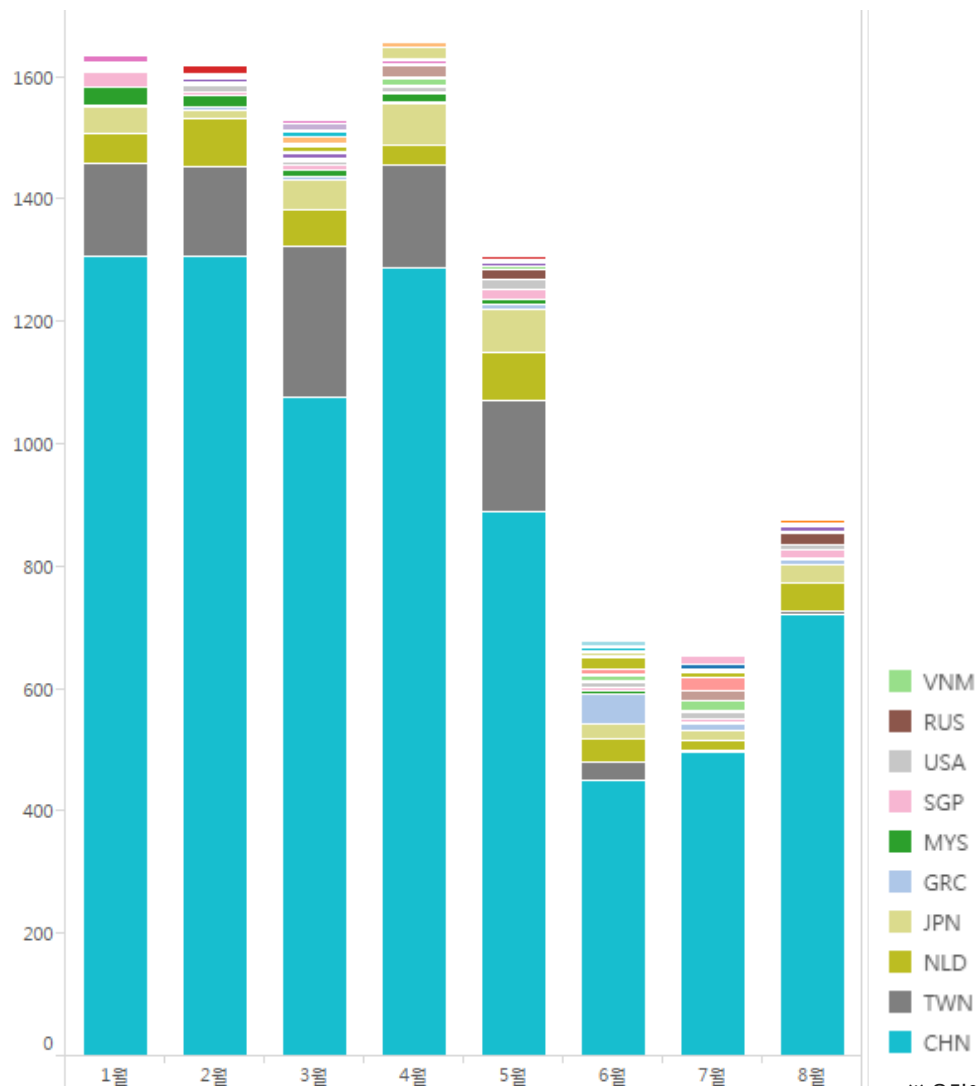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중구 월미도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54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유입된 국적은 중국>대만>네덜란드>일본>그리스 순.
- 특히 중국은 전체 중 75.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7529.3	20	프랑스(FRA)	16.6
2	대만(TWN)	935.9	21	인도(IND)	16.3
3	네덜란드(NLD)	397.1	22	영국(GBR)	16.0
4	일본(JPN)	313.7	23	필리핀(PHL)	13.4
5	그리스(GRC)	94.3	24	노르웨이(NOR)	7.6
6	말레이시아(MYS)	89.4	25	이스라엘(ISR)	6.5
7	싱가포르(SGP)	81.9	26	루마니아(ROU)	6.5
8	미국(USA)	77.4	27	사우디아라비아(SAU)	6.2
9	러시아(RUS)	49.9	28	룩셈부르크(LUX)	3.6
10	베트남(VNM)	46.3	29	몽골(MNG)	3.5
11	태국(타이,THA)	45.2	30	우즈베키스탄(UZB)	3.4
12	독일(DEU)	39.1	31	불가리아(BGR)	3.3
13	홍콩(HKG)	37.1	32	카자흐스탄(KAZ)	3.3
14	터키(TUR)	36.2	33	키프로스(사이프러스,CYP)	3.2
15	스리랑카(LKA)	31.7	34	체코(CZE)	3.2
16	인도네시아(IDN)	28.7	35	벨기에(BEL)	3.2
17	캐나다(CAN)	26.3	36	몬테네그로(MNE)	3.1
18	오스트레일리아(AUS)	25.4	37	스웨덴(SWE)	0.3
19	이탈리아(ITA)	17.8	38	아랍에미리트(ARE)	0.3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중구 월미도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 평균 30개 국적 외국인이 유입됨.
- 매달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의 비중은 월 평균 74.6%으로 압도적임.
- 2위는 1~5월까지 대만, 6월 영국, 7월 홍콩, 8월 네덜란드로 나타남. 3위는 3월, 8월 일본이 차지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네덜란드로 나타남.
- 특이점으로 1~5월 2위를 차지한 대만의 경우, 이후 유입이 급격히 감소해 7월 10위 권 내 오르지 못했으며, 8월의 경우 9위에 그침.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1-2월 말레이시아, 2월 인도네시아, 6월 터키, 7월 독일, 베트남, 인도, 8월 러시아 등 국적 외국인의 유입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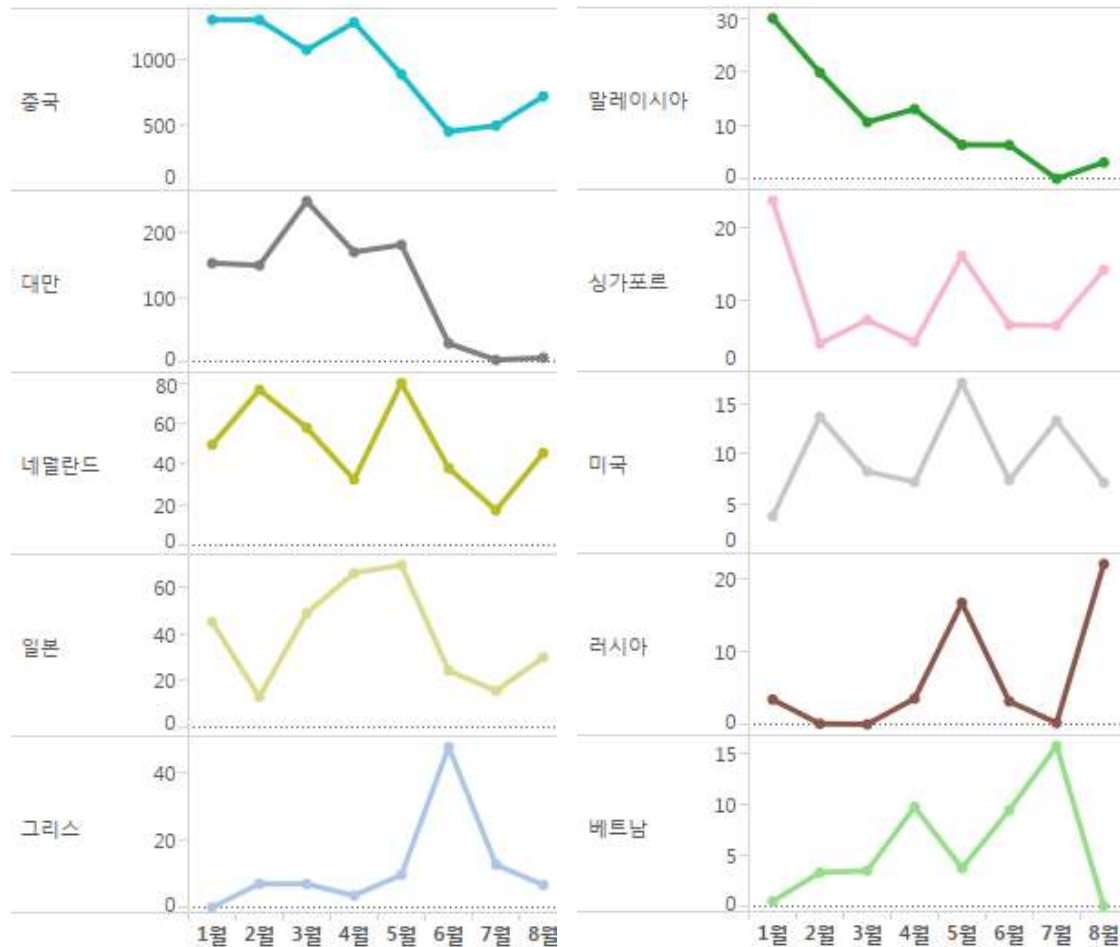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1306.1	중국 (CHN)	1305.1	중국 (CHN)	1075.5	중국 (CHN)	1286.3	중국 (CHN)	889.0	중국 (CHN)	451.1	중국 (CHN)	495.5	중국 (CHN)	720.6
2	대만 (TWN)	152.1	대만 (TWN)	148.7	대만 (TWN)	247.4	대만 (TWN)	169.1	대만 (TWN)	180.2	그리스 (GRC)	47.8	홍콩 (HKG)	22.1	네덜란드 (NLD)	45.6
3	네덜란드 (NLD)	49.6	네덜란드 (NLD)	76.5	네덜란드 (NLD)	57.9	일본 (JPN)	66.4	네덜란드 (NLD)	79.8	네덜란드 (NLD)	38.1	네덜란드 (NLD)	17.4	일본 (JPN)	30.0
4	일본 (JPN)	45.3	말레이시아 (MYS)	19.8	일본 (JPN)	49.1	네덜란드 (NLD)	32.5	일본 (JPN)	69.8	대만 (TWN)	28.6	독일 (DEU)	16.0	러시아 (RUS)	22.1
5	말레이시아 (MYS)	30.0	인도네시아 (IDN)	16.9	오스트레일리아 (AUS)	11.5	독일 (DEU)	20.1	미국 (USA)	17.1	일본 (JPN)	24.3	베트남 (VNM)	15.8	싱가포르 (SGP)	14.1
6	싱가포르 (SGP)	23.8	미국 (USA)	13.7	이탈리아 (ITA)	10.7	캐나다 (CAN)	19.6	러시아 (RUS)	16.8	터키 (TUR)	22.2	인도 (IND)	15.8	태국 (타이, THA)	9.6
7	스리랑카 (LKA)	10.9	일본 (JPN)	13.0	말레이시아 (MYS)	10.6	말레이시아 (MYS)	13.0	싱가포르 (SGP)	16.1	베트남 (VNM)	9.5	일본 (JPN)	15.7	미국 (USA)	7.1
8	홍콩 (HKG)	4.1	그리스 (GRC)	7.0	태국 (타이, THA)	10.6	오스트레일리아 (AUS)	10.1	그리스 (GRC)	9.7	미국 (USA)	7.3	미국 (USA)	13.3	그리스 (GRC)	6.7
9	태국 (타이, THA)	3.7	태국 (타이, THA)	6.9	영국 (GBR)	10.4	베트남 (VNM)	9.8	태국 (타이, THA)	9.5	싱가포르 (SGP)	6.5	그리스 (GRC)	12.7	대만 (TWN)	6.7
10	미국 (USA)	3.7	싱가포르 (SGP)	3.9	미국 (USA)	8.2	스리랑카 (LKA)	8.3	인도네시아 (IDN)	9.5	이탈리아 (ITA)	6.4	터키 (TUR)	6.6	루마니아 (ROU)	6.4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중구 월미도 유람선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중국, 네덜란드, 일본은 상반기 비교적 높은 유입을 보인다,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한 뒤,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하반기로 올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대만은 1월 대비 8월 유입량이 1/23 수준으로 감소, 말레이시아의 경우 1/10 수준으로 감소함.
- 그리스의 경우 비교적 다수의 국가가 6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오히려 6월에 유입량이 급증한 것이 특징적임.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국적/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1306.1	1305.1	1075.5	1286.3	889.0	451.1	495.5	720.6
대만(TWN)	152.1	148.7	247.4	169.1	180.2	28.6	3.2	6.7
네덜란드(NLD)	49.6	76.5	57.9	32.5	79.8	38.1	17.4	45.6
일본(JPN)	45.3	13.0	49.1	66.4	69.8	24.3	15.7	30.0
그리스(GRC)	0.02	7.02	6.97	3.5	9.7	47.8	12.7	6.7
말레이시아(MYS)	30.0	19.8	10.6	13.0	6.4	6.3	0.1	3.1
싱가포르(SGP)	23.8	3.9	7.2	4.1	16.1	6.5	6.4	14.1
미국(USA)	3.7	13.7	8.2	7.1	17.1	7.3	13.3	7.1
러시아(RUS)	3.5	0.2	0.1	3.6	16.8	3.3	0.3	22.1
베트남(VNM)	0.5	3.4	3.5	9.8	3.8	9.5	15.8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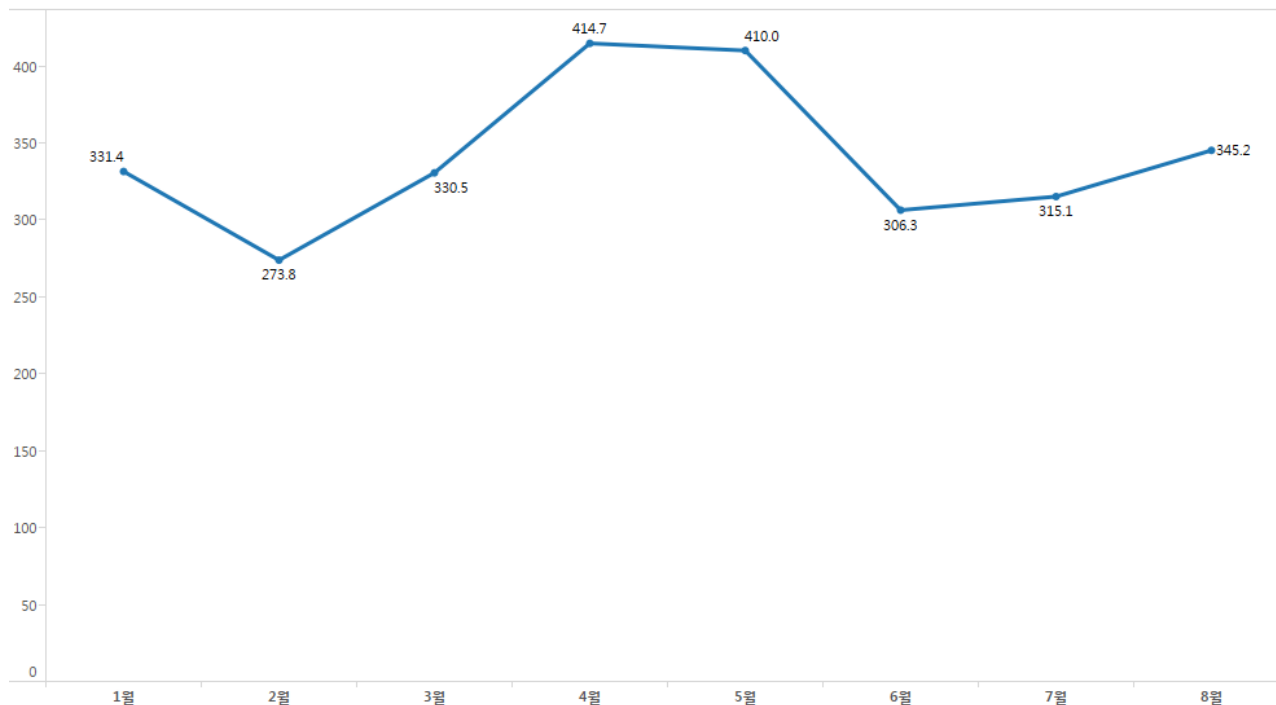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3.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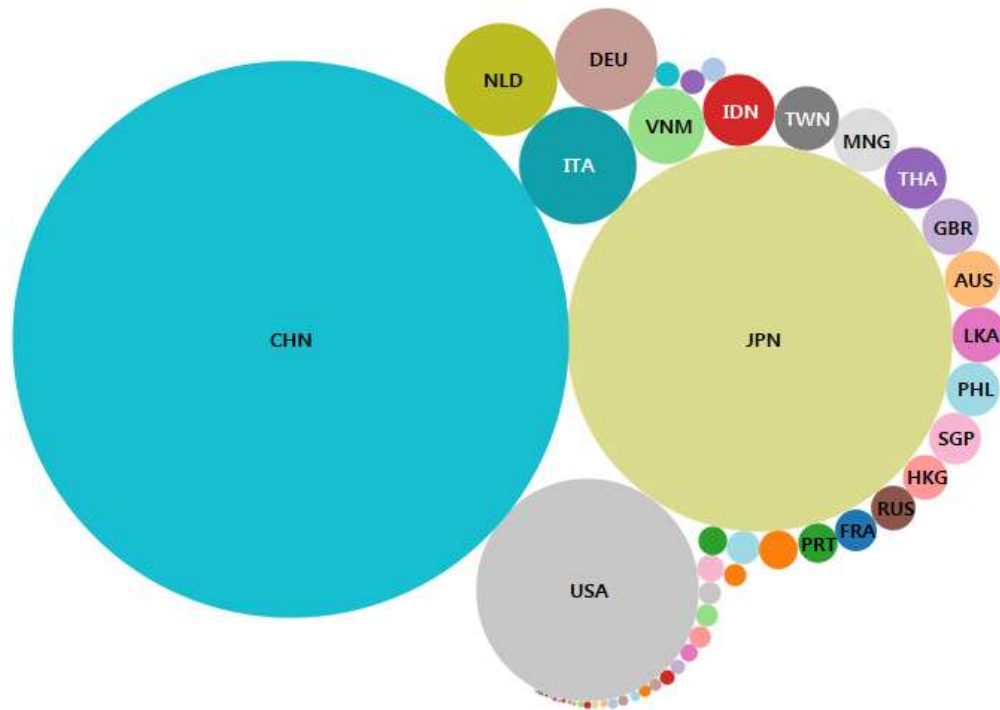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 달은 4월, 가장 적은 외국인이 유입된 달은 2월로 나타남.
- 2월~4월 증가, 4월~6월 하락, 6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달 유입인구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편임.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동구_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외국인 유입인구(명)	331.4	273.8	330.6	414.7	410.0	306.3	315.1	345.2	2727.1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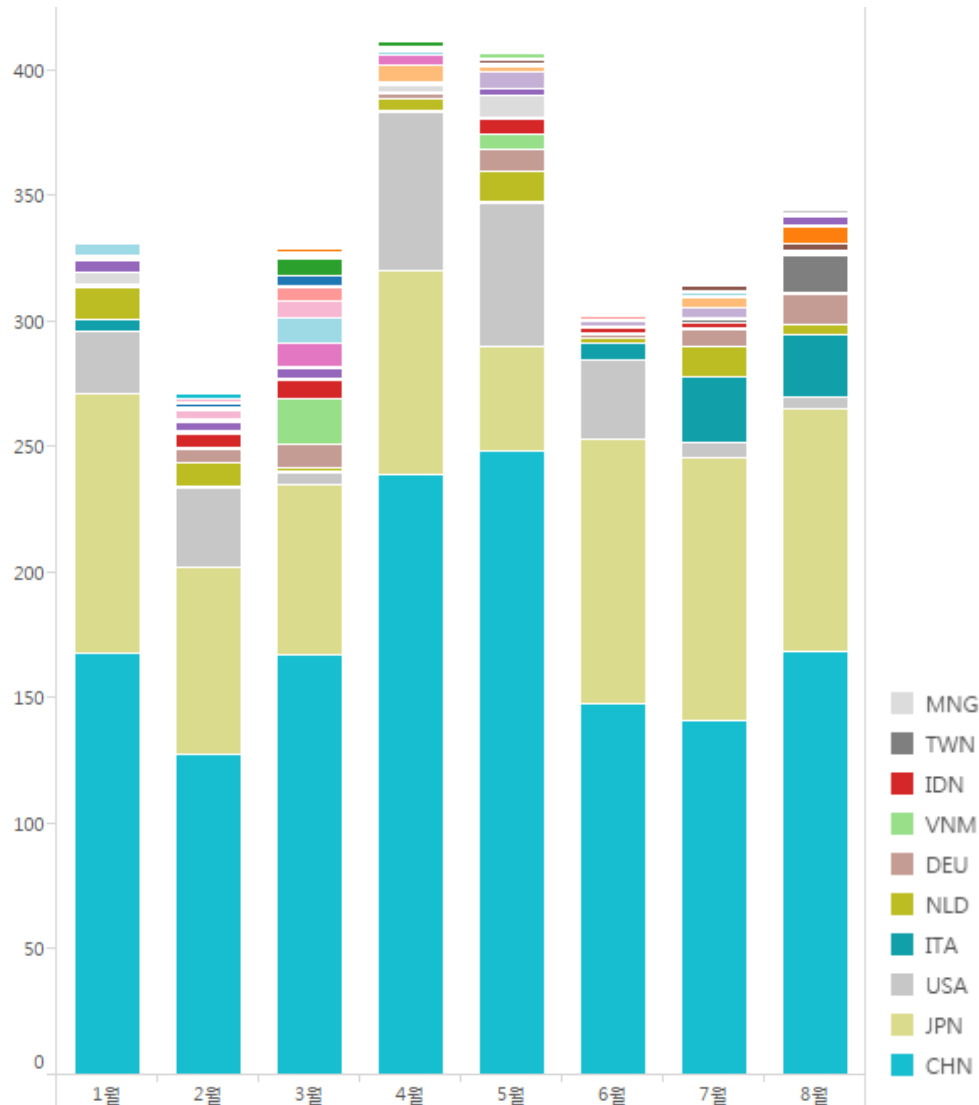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53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유입된 국적은 중국>일본>미국>이탈리아>네덜란드 순.
- 중국, 일본, 미국 국적 외국인 유입 외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유입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1406.6	20	포르투갈(PRT)	7.1
2	일본(JPN)	675.4	21	스웨덴(SWE)	6.8
3	미국(USA)	225.4	22	룩셈부르크(LUX)	5.1
4	이탈리아(ITA)	62.7	23	말레이시아(MYS)	3.8
5	네덜란드(NLD)	57.7	24	체코(CZE)	3.3
6	독일(DEU)	47.7	25	오스트리아(AUT)	2.9
7	베트남(VNM)	26.6	26	남아프리카공화국(ZAF)	2.9
8	인도네시아(IDN)	23.4	27	그리스(GRC)	2.7
9	대만(TWN)	18.7	28	루마니아(ROU)	2.4
10	몽골(MNG)	18.5	29	아랍에미리트(ARE)	2.4
11	태국(타이,THA)	17.3	30	뉴질랜드(NZL)	2.3
12	영국(GBR)	14.7	31	핀란드(FIN)	2.1
13	오스트레일리아(AUS)	14.6	32	노르웨이(NOR)	1.4
14	스리랑카(LKA)	14.0	33	카자흐스탄(KAZ)	1.2
15	필리핀(PHL)	13.2	34	폴란드(POL)	1.0
16	싱가포르(SGP)	12.2	35	사우디아라비아(SAU)	0.7
17	홍콩(HKG)	9.2	36	이집트(EGY)	0.7
18	러시아(RUS)	9.0	37	멕시코(MEX)	0.6
19	프랑스(FRA)	7.9	38	수단(SDN)	0.6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 평균 25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됨.
- 매달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 2위는 5월(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3위를 차지하던 미국은 7월과 8월 각각 6위, 7위를 차지하며 유입이 줄어들음.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3월 베트남, 필리핀, 5월 네덜란드, 몽골 8월 대만 등 국적 외국인 유입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6월 4위에 이어서 7~8월에 3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적임.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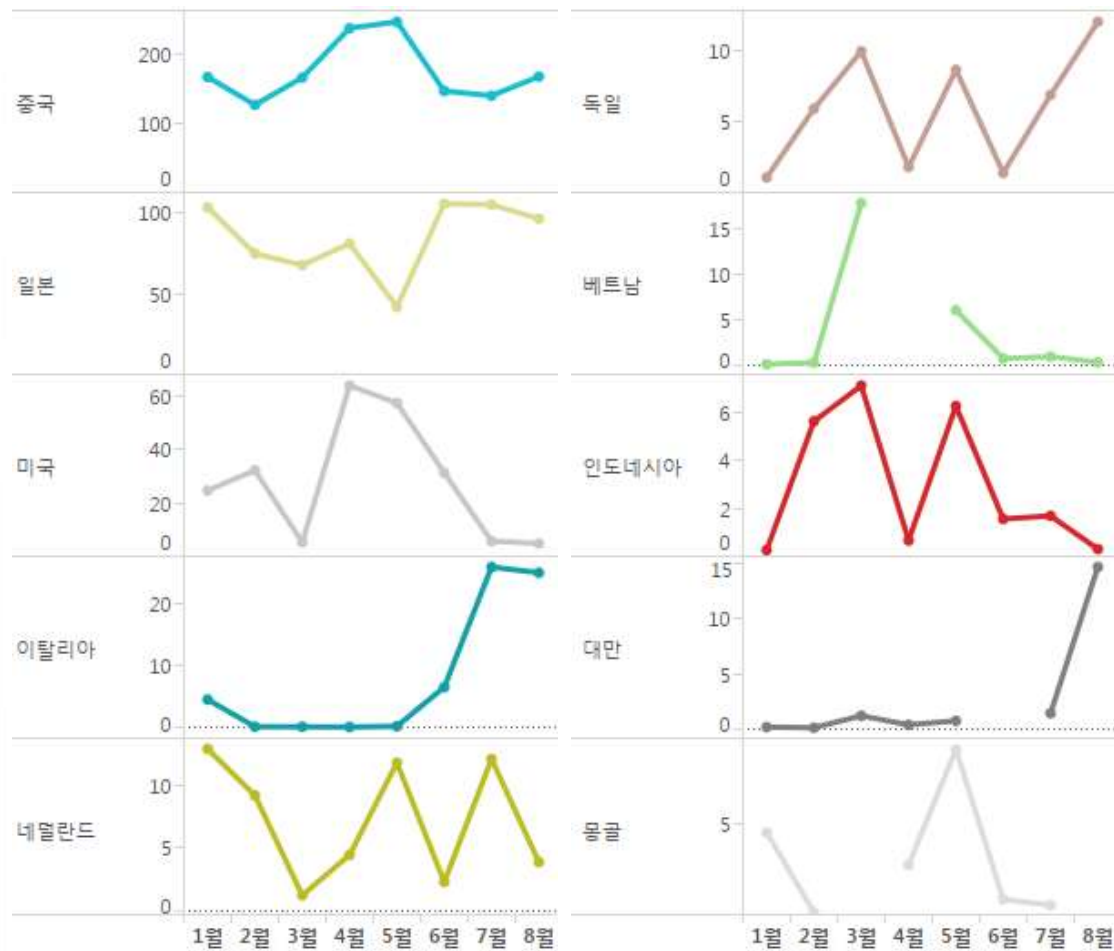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168.0	중국 (CHN)	127.4	중국 (CHN)	167.1	중국 (CHN)	239.0	중국 (CHN)	248.3	중국 (CHN)	147.6	중국 (CHN)	140.8	중국 (CHN)	168.5
2	일본 (JPN)	103.3	일본 (JPN)	74.7	일본 (JPN)	67.6	일본 (JPN)	81.0	미국 (USA)	57.4	일본 (JPN)	105.6	일본 (JPN)	105.1	일본 (JPN)	96.4
3	미국 (USA)	24.7	미국 (USA)	32.2	베트남 (VNM)	17.9	미국 (USA)	64.0	일본 (JPN)	41.7	미국 (USA)	31.3	이탈리아 (ITA)	26.0	이탈리아 (ITA)	25.1
4	네덜란드 (NLD)	12.9	네덜란드 (NLD)	9.2	필리핀 (PHL)	10.3	오스트레일리아 (AUS)	6.7	네덜란드 (NLD)	11.8	이탈리아 (ITA)	6.5	네덜란드 (NLD)	12.1	대만 (TWN)	14.7
5	룩셈부르크 (LUX)	4.7	독일 (DEU)	5.9	독일 (DEU)	10.0	네덜란드 (NLD)	4.4	몽골 (MNG)	8.8	네덜란드 (NLD)	2.3	독일 (DEU)	6.9	독일 (DEU)	12.0
6	이탈리아 (ITA)	4.5	인도네시아 (IDN)	5.6	스리랑카 (LKA)	9.5	스리랑카 (LKA)	4.3	독일 (DEU)	8.7	홍콩 (HKG)	1.9	미국 (USA)	5.7	스웨덴 (SWE)	6.7
7	몽골 (MNG)	4.5	태국 (타이, THA)	4.3	인도네시아 (IDN)	7.1	몽골 (MNG)	2.9	영국 (GBR)	6.7	영국 (GBR)	1.7	오스트레일리아 (AUS)	4.9	미국 (USA)	4.8
8	태국 (타이, THA)	4.5	싱가포르 (SGP)	3.6	포르투갈 (PRT)	7.1	말레이시아 (MYS)	2.1	인도네시아 (IDN)	6.2	인도네시아 (IDN)	1.6	영국 (GBR)	3.8	네덜란드 (NLD)	3.9
9	영국 (GBR)	1.6	오스트리아 (AUT)	2.7	싱가포르 (SGP)	6.6	독일 (DEU)	1.8	베트남 (VNM)	6.1	프랑스 (FRA)	1.5	러시아 (RUS)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2.9
10	독일 (DEU)	1.1	프랑스 (FRA)	1.6	홍콩 (HKG)	5.8	필리핀 (PHL)	1.1	태국 (타이, THA)	2.5	독일 (DEU)	1.4	인도네시아 (IDN)	1.7	러시아 (RUS)	2.7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 동구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중국과 미국의 경우 4-5월 가장 높은 외국인 유입량을 기록한 뒤 감소함. 이후 중국의 경우 8월까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유입은 계속 하락해 매우 낮아짐.
- 그 외 국가별 특징으로 일본은 비교적 다수의 국가가 6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오히려 6월에 유입량이 급증함. 이탈리아는 상반기 유입량이 미미하다, 6월을 기점으로 급증함. 이탈리아의 7,8월 유입량은 6월 유입량의 4배 수준에 이름.
- 전체 유입규모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매달 유입되지 않은 국가로 베트남, 대만, 몽골이 있음.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국적/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168.0	127.4	167.1	239.0	248.3	147.6	140.8	168.5
일본(JPN)	103.3	74.7	67.6	81.0	41.7	105.6	105.1	96.4
미국(USA)	24.7	32.2	5.3	64.0	57.4	31.3	5.7	4.8
이탈리아(ITA)	4.5	0.13	0.12	0.08	0.2	6.5	26.0	25.1
네덜란드(NLD)	12.9	9.2	1.2	4.4	11.8	2.3	12.1	3.9
독일(DEU)	1.1	5.9	10.0	1.8	8.7	1.4	6.9	12.0
베트남(VNM)	0.1	0.3	17.9	-	6.1	0.8	1.0	0.4
인도네시아(IDN)	0.3	5.6	7.1	0.7	6.2	1.6	1.7	0.3
대만(TWN)	0.2	0.1	1.2	0.4	0.7	-	1.4	14.7
몽골(MNG)	4.5	0.4	-	2.9	8.8	1.1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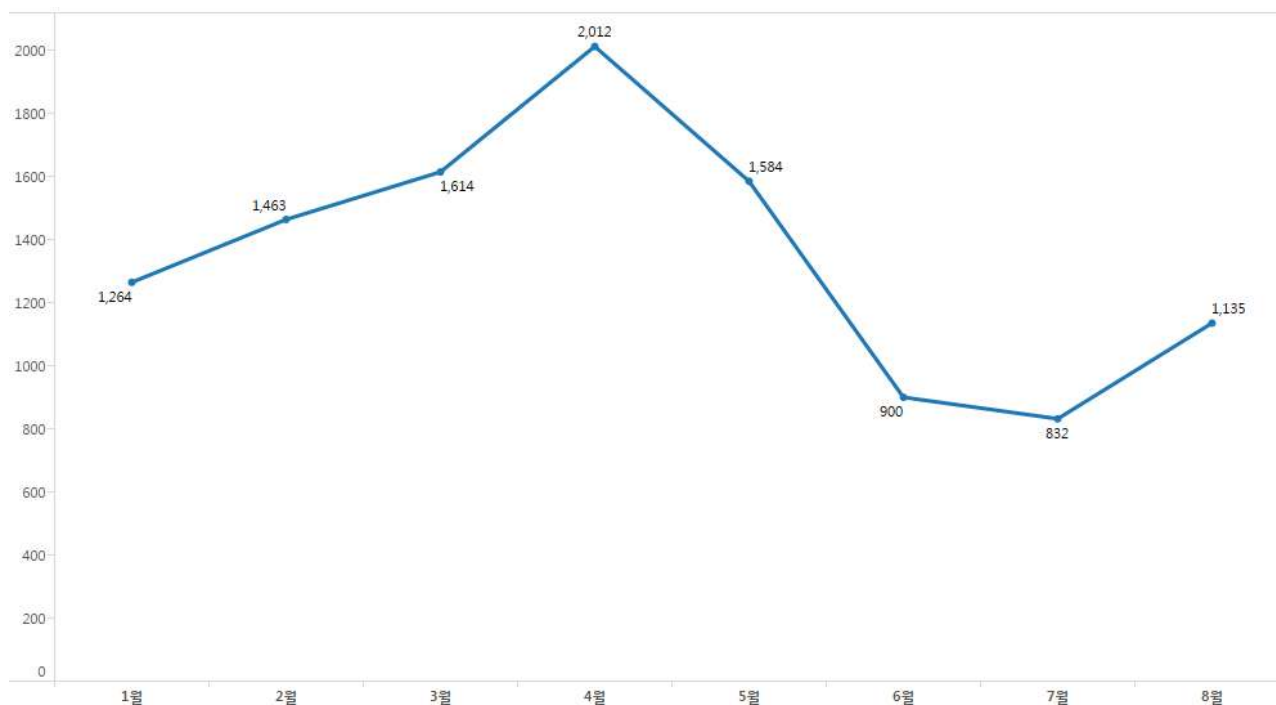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4.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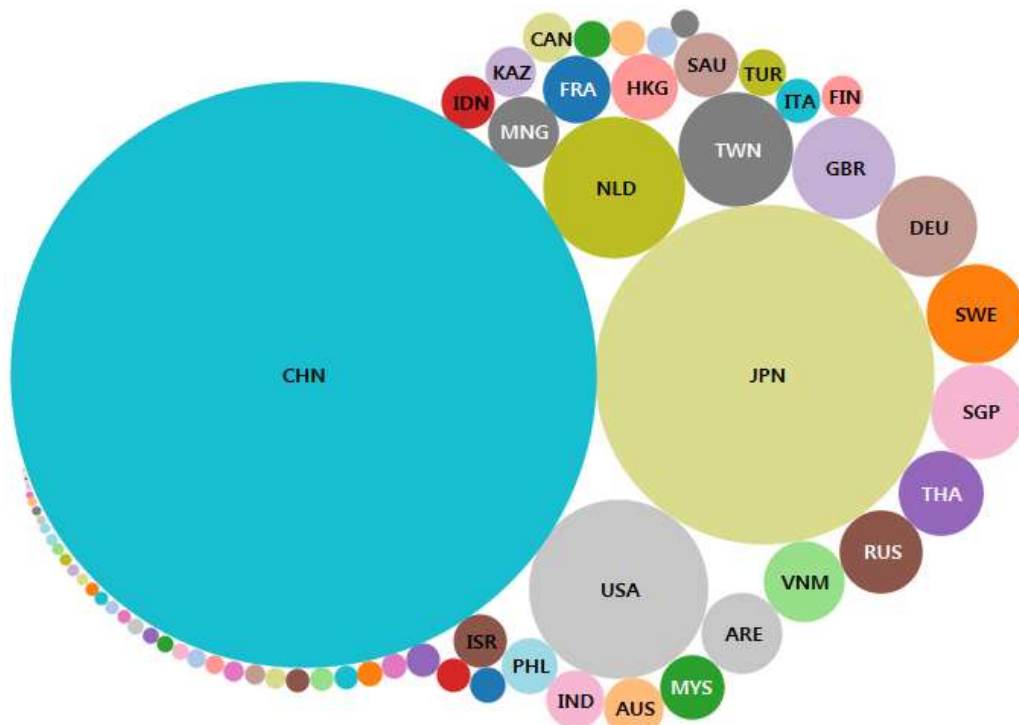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꾸준히 증가해 4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됨.
- 4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급락함. 6·7월의 유입인구는 4월의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함. 이후 8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연수구_인천상륙작전기념관 외국인 유입인구(명)	1264.2	1463.3	1613.9	2011.8	1584.3	899.6	831.6	1134.8	10803.3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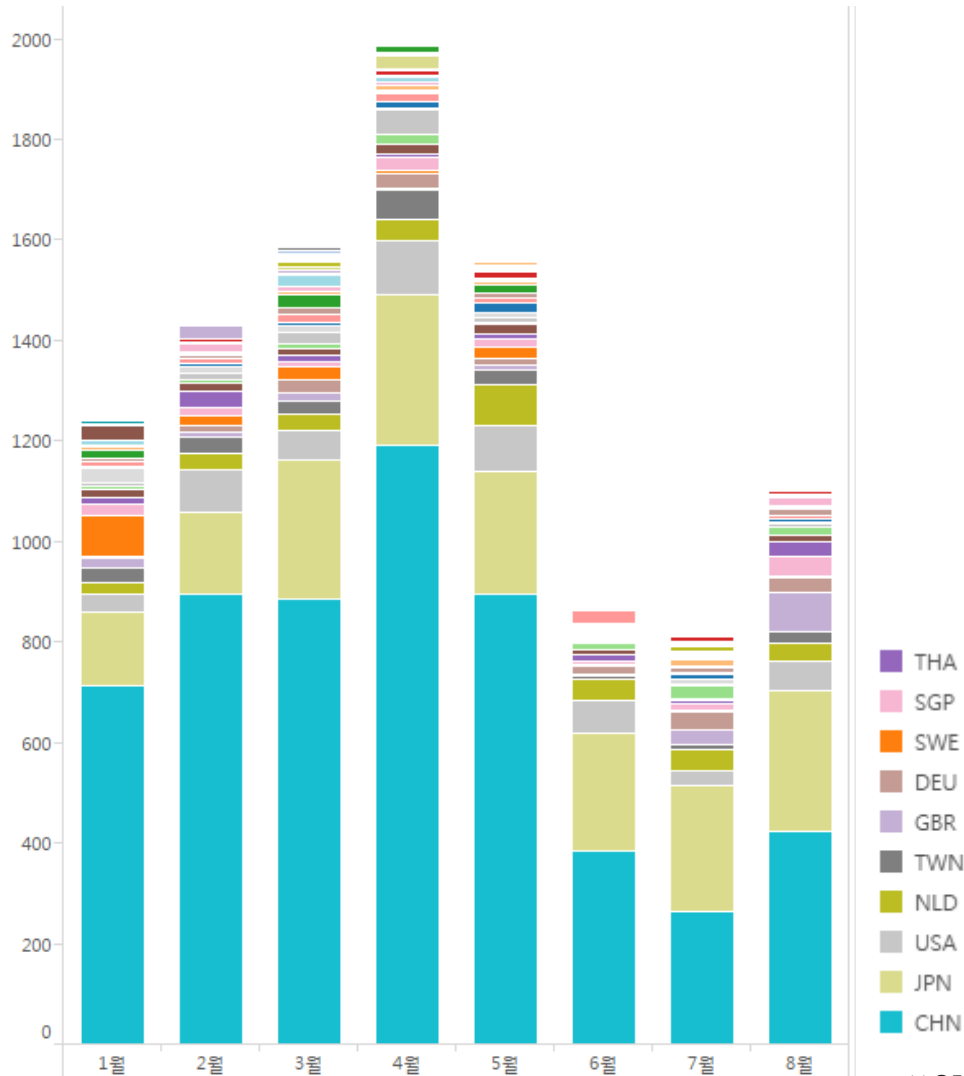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71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어, 비교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이 유입된 국적은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대만 순으로 나타남.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5651.0	20	인도(IND)	56.3
2	일본(JPN)	1895.3	21	필리핀(PHL)	51.7
3	미국(USA)	528.2	22	이스라엘(ISR)	47.4
4	네덜란드(NLD)	330.6	23	인도네시아(IDN)	47.0
5	대만(TWN)	216.2	24	카자흐스탄(KAZ)	42.5
6	영국(GBR)	174.8	25	캐나다(CAN)	41.2
7	독일(DEU)	167.7	26	터키(TUR)	36.5
8	스웨덴(SWE)	161.8	27	이탈리아(ITA)	32.5
9	싱가포르(SGP)	148.1	28	핀란드(FIN)	28.4
10	태국(타이,THA)	118.6	29	포르투갈(PRT)	22.2
11	러시아(RUS)	113.7	30	스위스(CHE)	21.1
12	베트남(VNM)	108.9	31	우즈베키스탄(UZB)	20.9
13	아랍에미리트(ARE)	108.0	32	폴란드(POL)	19.1
14	몽골(MNG)	82.8	33	스페인(ESP)	18.8
15	프랑스(FRA)	75.1	34	그리스(GRC)	15.8
16	홍콩(HKG)	73.3	35	방글라데시(BGD)	13.0
17	사우디아라비아(SAU)	69.5	36	아일랜드(IRL)	10.7
18	말레이시아(MYS)	68.5	37	루마니아(ROU)	10.6
19	오스트레일리아(AUS)	59.5	38	오스트리아(AUT)	9.6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 평균 47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어, 비교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됨을 알 수 있음.
- 매달 1위와 2위는 변동 없이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월별 전체 유입인구 중 중국 국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편이고, 일본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3위의 경우 1월 스웨덴, 2~6월 미국, 7월 네덜란드, 8월 영국으로 나타남.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4월 대만, 아랍에미리트, 5~6월 네덜란드, 6월 핀란드, 7월 독일, 8월 싱가포르 등 국적 외국인 유입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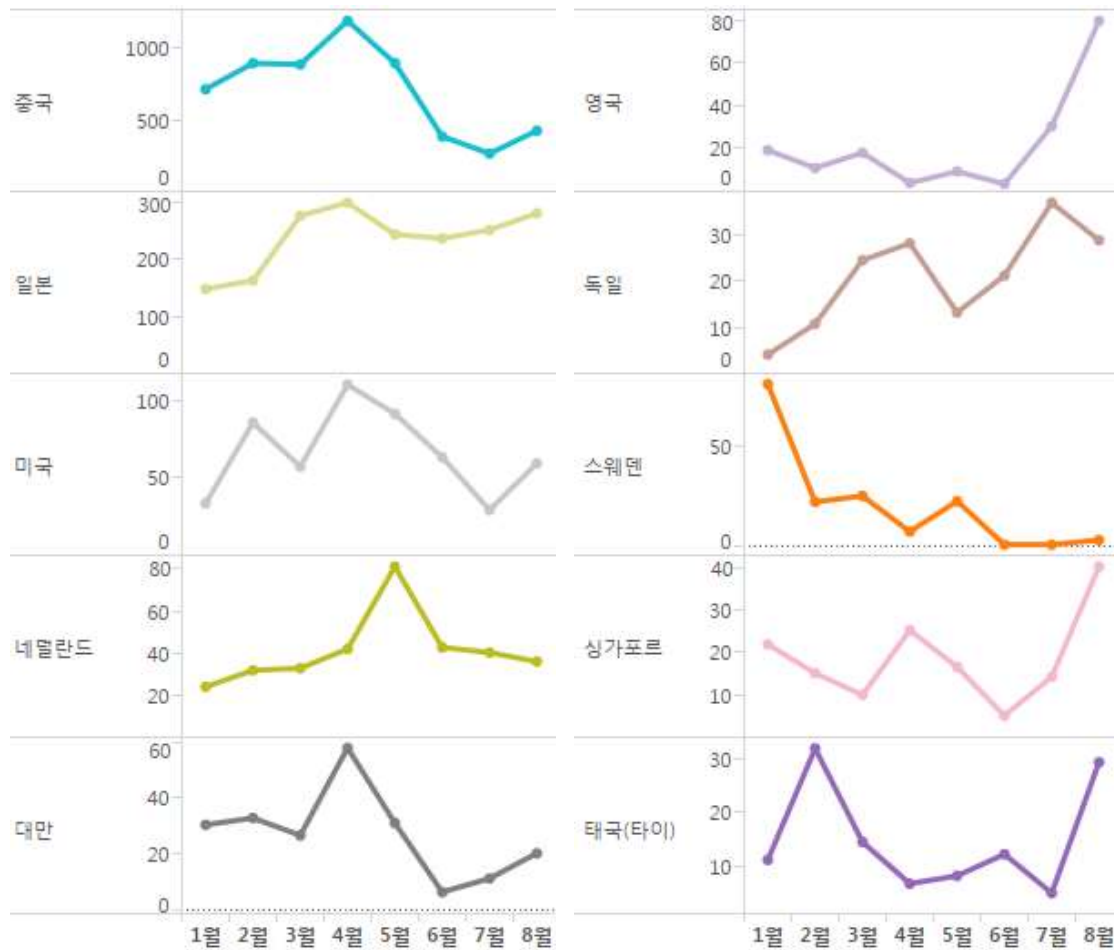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712.7	중국 (CHN)	894.5	중국 (CHN)	886.1	중국 (CHN)	1190.7	중국 (CHN)	895.4	중국 (CHN)	383.5	중국 (CHN)	264.4	중국 (CHN)	423.7
2	일본 (JPN)	147.6	일본 (JPN)	162.6	일본 (JPN)	275.9	일본 (JPN)	298.7	일본 (JPN)	243.2	일본 (JPN)	236.1	일본 (JPN)	251.1	일본 (JPN)	280.1
3	스웨덴 (SWE)	81.2	미국 (USA)	85.4	미국 (USA)	57.1	미국 (USA)	109.8	미국 (USA)	91.1	미국 (USA)	63.1	네덜란드 (NLD)	40.3	영국 (GBR)	79.5
4	미국 (USA)	33.5	대만 (TWN)	32.8	네덜란드 (NLD)	32.8	대만 (TWN)	58.0	네덜란드 (NLD)	81.1	네덜란드 (NLD)	42.7	독일 (DEU)	37.0	미국 (USA)	59.1
5	대만 (TWN)	30.4	태국(타이, THA)	32.0	대만 (TWN)	26.6	아랍에미리트 (ARE)	48.6	대만 (TWN)	31.0	핀란드 (FIN)	26.3	영국 (GBR)	30.4	싱가포르 (SGP)	40.2
6	몽골 (MNG)	30.1	네덜란드 (NLD)	31.8	말레이시아 (MYS)	26.2	네덜란드 (NLD)	42.0	스웨덴 (SWE)	22.4	독일 (DEU)	21.2	미국 (USA)	29.2	네덜란드 (NLD)	36.0
7	이스라엘 (ISR)	27.9	카자흐스탄 (KAZ)	28.6	스웨덴 (SWE)	25.0	캐나다 (CAN)	28.9	프랑스 (FRA)	20.1	베트남 (VNM)	16.2	베트남 (VNM)	27.9	태국 (타이, THA)	29.4
8	네덜란드 (NLD)	24.0	스웨덴 (SWE)	22.0	필리핀 (PHL)	24.7	독일 (DEU)	28.2	러시아 (RUS)	19.4	태국 (타이, THA)	12.2	터키 (TUR)	14.4	독일 (DEU)	28.8
9	싱가포르 (SGP)	21.9	러시아 (RUS)	17.3	독일 (DEU)	24.5	싱가포르 (SGP)	25.2	싱가포르 (SGP)	16.6	러시아 (RUS)	10.4	싱가포르 (SGP)	14.2	대만 (TWN)	20.1
10	영국 (GBR)	19.2	인도 (IND)	15.1	아랍에미리트 (ARE)	23.7	러시아 (RUS)	20.1	인도네시아 (IDN)	16.4	대만 (TWN)	6.2	폴란드 (POL)	12.6	폴란드 (POL)	18.0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중국, 미국, 대만의 경우 4월 가장 많은 유입량을 기록한 뒤 6-7월까지 하락,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영국, 독일의 경우 하반기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싱가포르와 태국 역시 월별 유입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8월에 전월 대비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함.
- 반면, 스웨덴의 경우 1월 높은 유입량을 기록한 뒤 급격히 감소, 6월 이후에는 유입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국적/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712.7	894.5	886.1	1190.7	895.4	383.5	264.4	423.7
일본(JPN)	147.6	162.6	275.9	298.7	243.2	236.1	251.1	280.1
미국(USA)	33.5	85.4	57.1	109.8	91.1	63.1	29.2	59.1
네덜란드(NLD)	24.0	31.8	32.8	42.0	81.1	42.7	40.3	36.0
대만(TWN)	30.4	32.8	26.6	58.0	31.0	6.2	11.1	20.1
영국(GBR)	19.2	10.9	18.0	4.0	9.3	3.5	30.4	79.5
독일(DEU)	4.1	10.7	24.5	28.2	13.2	21.2	37.0	28.8
스웨덴(SWE)	81.2	22.0	25.0	7.1	22.4	0.6	0.6	2.9
싱가포르(SGP)	21.9	15.1	10.0	25.2	16.6	5.1	14.2	40.2
태국(타이,THA)	11.1	32.0	14.5	6.6	8.1	12.2	4.9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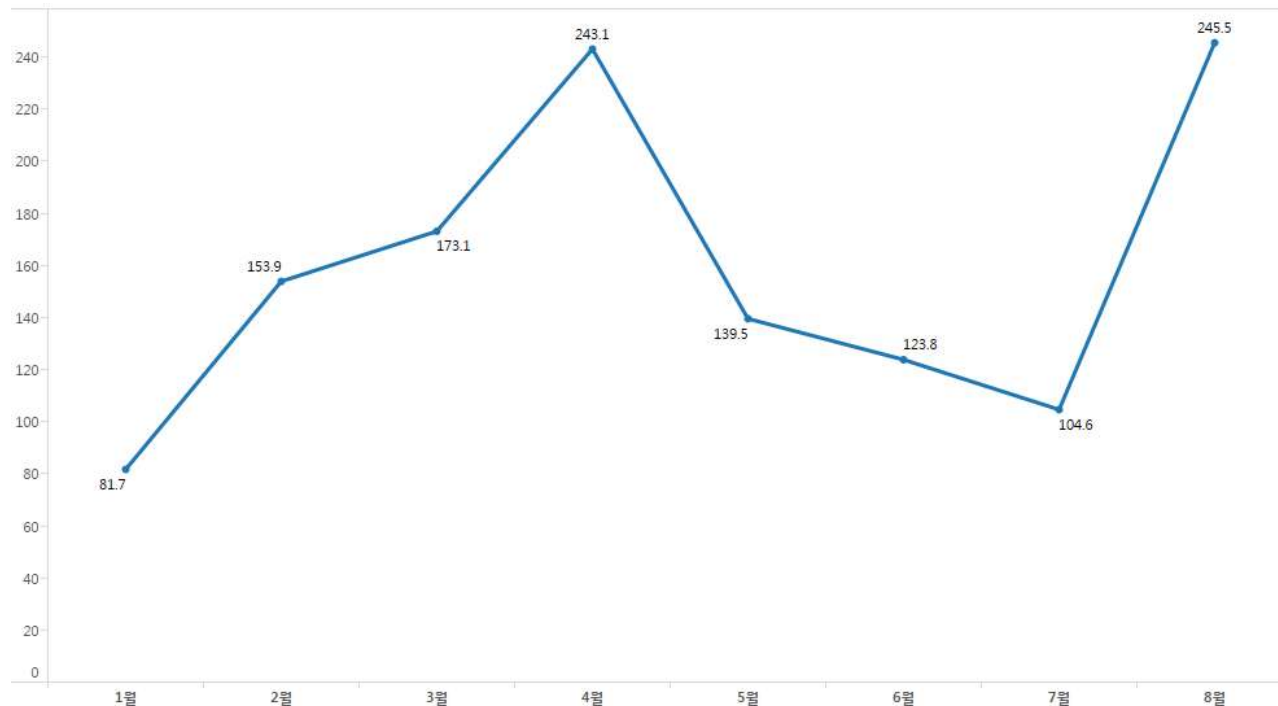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5. 강화도 나들길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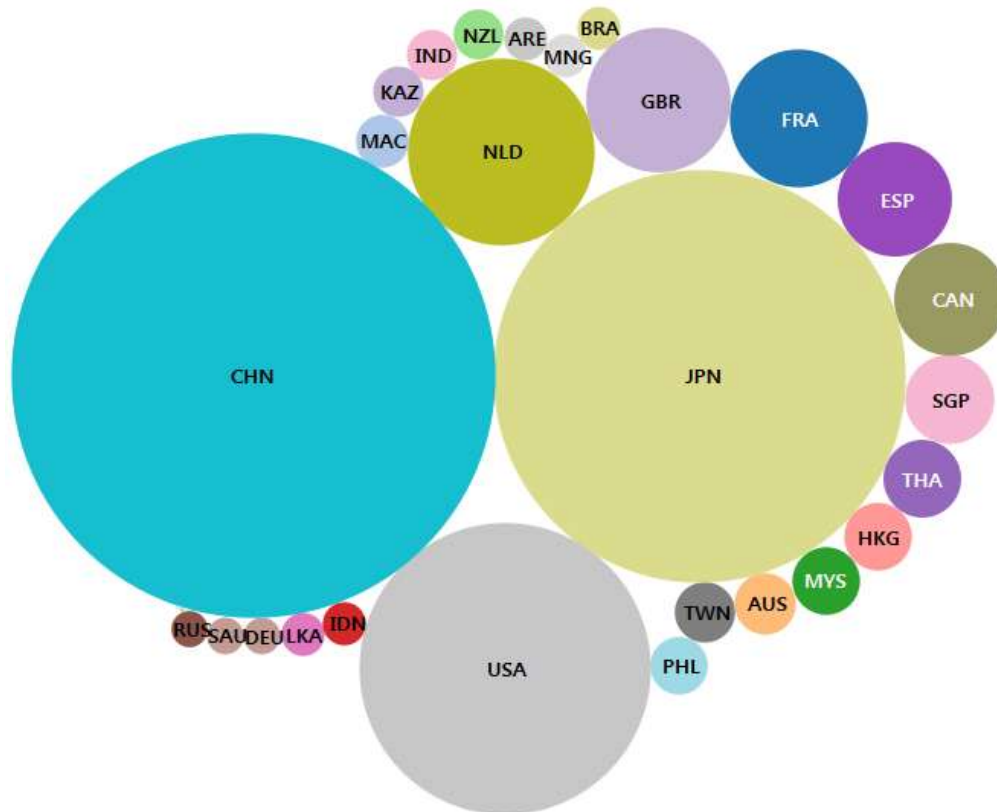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강화 나들길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증가, 4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하락, 8월 다시 급증함.
- 특히 8월의 유입인구는 상반기 가장 높은 인구 유입을 기록한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월 대비 2.3배 증가함.
- 다만, 강화도 나들길의 총 외국인 유입인구는 분석 대상 6개 관광지 평균 유입인구(12,144)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음.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강화도_나들길 외국인 유입인구(명)	81.7	153.9	173.1	243.1	139.5	123.8	104.6	245.5	1265.1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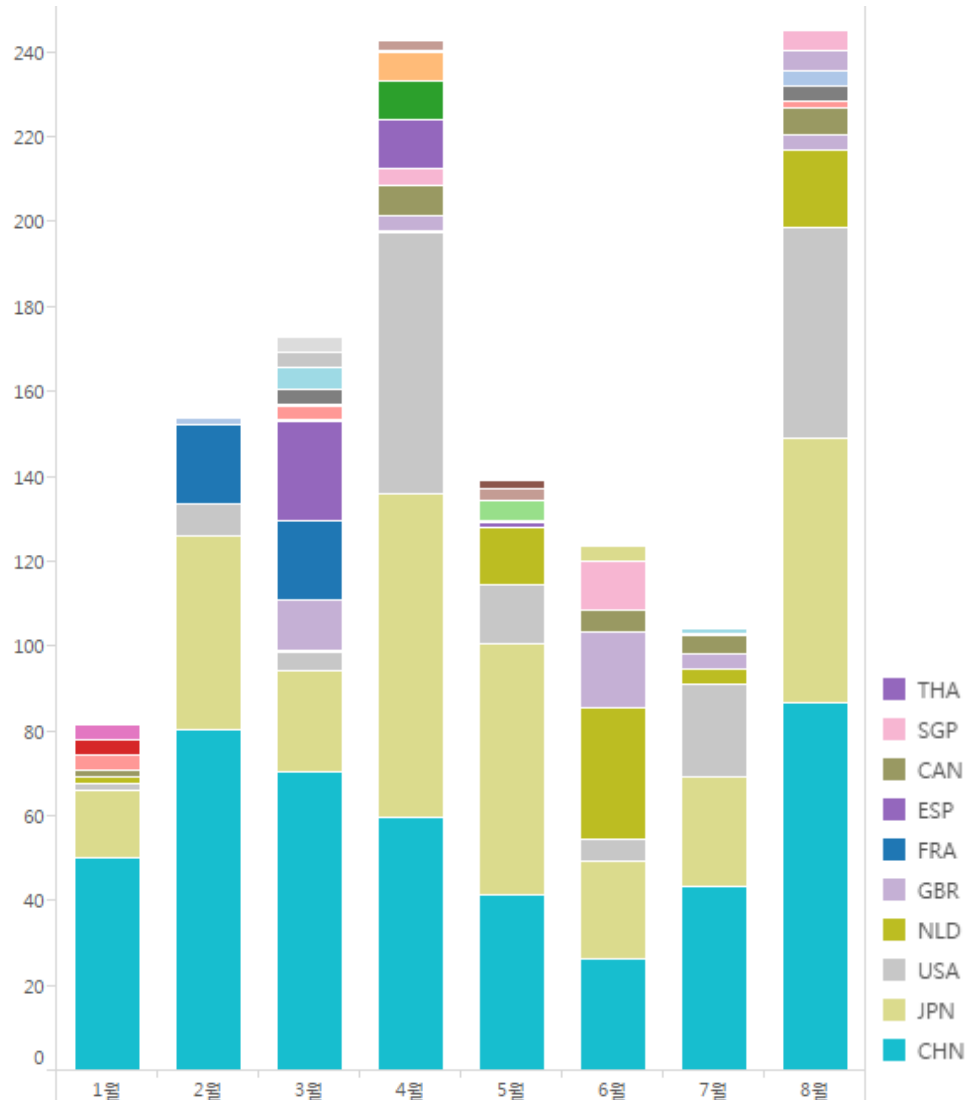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강화도 나들길**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30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영국 순.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457.7	16	마카오(MAC)	5.5
2	일본(JPN)	332.1	17	인도(IND)	5.0
3	미국(USA)	165.9	18	카자흐스탄(KAZ)	5.0
4	네덜란드(NLD)	68.1	19	뉴질랜드(NZL)	4.9
5	영국(GBR)	40.8	20	아랍에미리트(ARE)	3.7
6	프랑스(FRA)	37.1	21	몽골(MNG)	3.7
7	스페인(ESP)	25.5	22	브라질(BRA)	3.7
8	캐나다(CAN)	24.8	23	인도네시아(IDN)	3.7
9	싱가포르(SGP)	15.5	24	스리랑카(LKA)	3.7
10	태국(타이,THA)	11.8	25	독일(DEU)	2.7
11	홍콩(HKG)	9.0	26	사우디아라비아(SAU)	2.6
12	말레이시아(MYS)	8.9	27	러시아(RUS)	2.6
13	오스트레일리아(AUS)	7.4	28	베트남(VNM)	0.0
14	대만(TWN)	7.1	29	스위스(CHE)	0.0
15	필리핀(PHL)	6.5	30	괌(GUM)	0.0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강화도 나들길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평균 11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됨. 특히 2·6·7월의 경우 10개 미만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강화도 나들길로 유입되는 외국인 국적 다양성이 비교적 낮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월별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 1위 국적은 1~3월과 7~8월은 중국, 4~5월은 일본, 6월은 네덜란드로 나타남.
- 2위는 일본(1,2,3,7,8월), 중국(5,6월)이 차지한 가운데, 4월의 경우 미국이 2위를 차지함.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2~3월 프랑스, 3월 스페인, 4월 태국, 6월 영국, 싱가포르 등 국적 외국인 유입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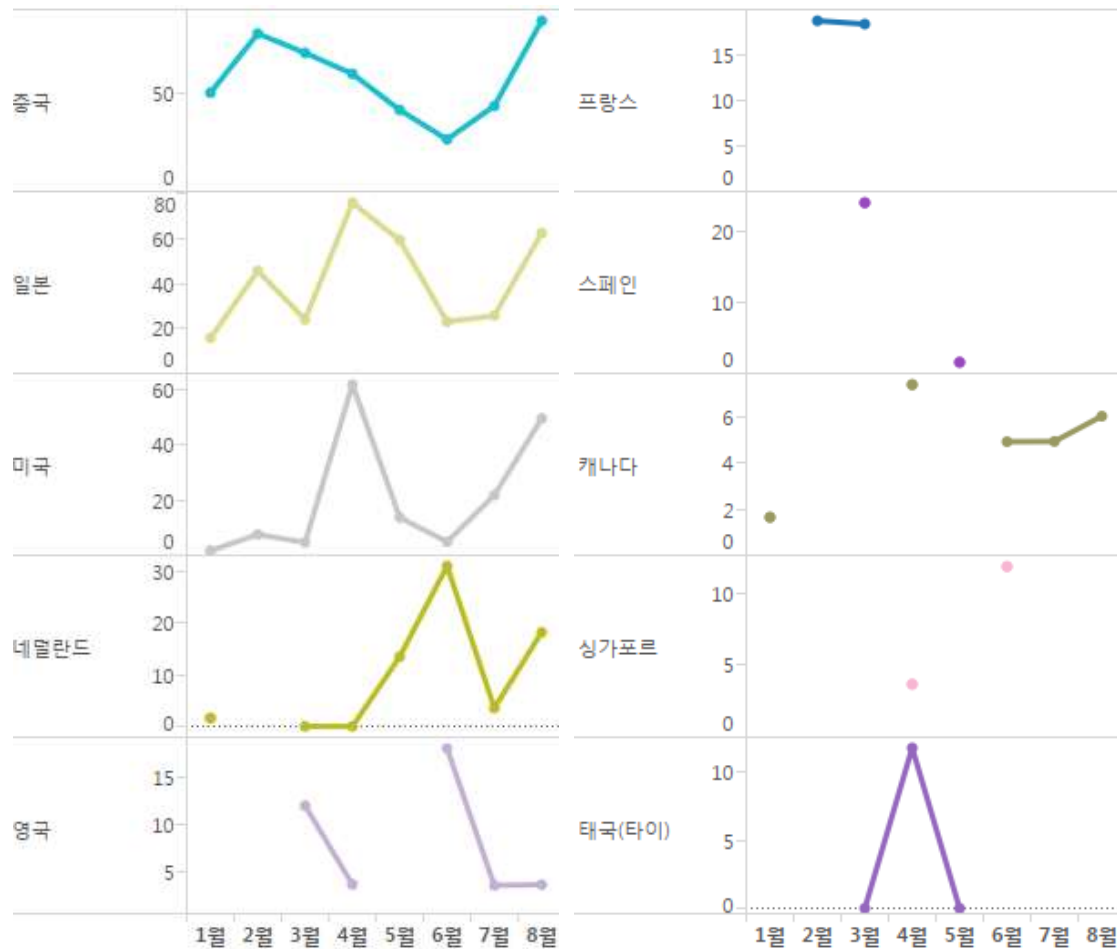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50.06	중국 (CHN)	80.06	중국 (CHN)	70.27	일본 (JPN)	76.03	일본 (JPN)	59.35	네덜란드 (NLD)	31.09	중국 (CHN)	43.39	중국 (CHN)	86.55
2	일본 (JPN)	15.74	일본 (JPN)	45.68	일본 (JPN)	24.04	미국 (USA)	61.95	중국 (CHN)	41.32	중국 (CHN)	26.38	일본 (JPN)	25.70	일본 (JPN)	62.56
3	홍콩 (HKG)	3.64	프랑스 (FRA)	18.73	스페인 (ESP)	23.98	중국 (CHN)	59.64	미국 (USA)	13.71	일본 (JPN)	23.00	미국 (USA)	21.84	미국 (USA)	49.63
4	인도네시아 (IDN)	3.64	미국 (USA)	7.55	프랑스 (FRA)	18.37	태국 (타이, THA)	11.79	네덜란드 (NLD)	13.53	영국 (GBR)	18.00	캐나다 (CAN)	4.91	네덜란드 (NLD)	18.25
5	스리랑카 (LKA)	3.64	마카오 (MAC)	1.84	영국 (GBR)	11.97	말레이시아 (MYS)	8.92	뉴질랜드 (NZL)	4.90	싱가포르 (SGP)	11.85	네덜란드 (NLD)	3.57	캐나다 (CAN)	6.00
6	미국 (USA)	1.65	-	-	필리핀 (PHL)	4.89	캐나다 (CAN)	7.36	러시아 (RUS)	2.57	미국 (USA)	4.90	영국 (GBR)	3.56	인도 (IND)	5.00
7	캐나다 (CAN)	1.64	-	-	미국 (USA)	4.65	오스트레일리아 (AUS)	7.36	독일 (DEU)	2.55	캐나다 (CAN)	4.90	필리핀 (PHL)	1.61	카자흐스탄 (KAZ)	5.00
8	네덜란드 (NLD)	1.64	-	-	홍콩 (HKG)	3.74	싱가포르 (SGP)	3.68	스페인 (ESP)	1.56	브라질 (BRA)	3.66	오스트레일리아 (AUS)	0.02	영국 (GBR)	3.63
9	사우디아라비아 (SAU)	0.01	-	-	아랍에미리트 (ARE)	3.73	영국 (GBR)	3.66	태국 (타이, THA)	0.01	베트남 (VNM)	0.01	인도네시아 (IDN)	0.02	대만 (TWN)	3.62
10	베트남 (VNM)	0.01	-	-	몽골 (MNG)	3.73	사우디아라비아 (SAU)	2.62	대만 (TWN)	0.01	-	-	-	-	마카오 (MAC)	3.62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강화도 나들길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외국인 유입 규모 상위 3개 국적인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상반기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 6월까지 감소, 이후 8월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이 경향을 보임.
- 강화도 나들길의 경우 매달 유입된 외국인의 국적이 중국, 일본, 미국 밖에 없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 그 외 국적의 경우, 특정 월에 유입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3월 프랑스, 3월 스페인, 4월 태국, 6월 영국, 싱가포르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국적/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50.1	80.1	70.3	59.6	41.3	26.4	43.4	86.6
일본(JPN)	15.7	45.7	24.0	76.0	59.4	23.0	25.7	62.6
미국(USA)	1.7	7.6	4.7	62.0	13.7	4.9	21.8	49.6
네덜란드(NLD)	1.6	-	0.02	0.02	13.5	31.1	3.6	18.3
영국(GBR)	-	-	12.0	3.7	-	18.0	3.56	3.63
프랑스(FRA)	-	18.7	18.4	-	-	-	-	-
스페인(ESP)	-	-	24.0	-	1.6	-	-	-
캐나다(CAN)	1.6	-	-	7.4	-	4.90	4.91	6.0
싱가포르(SGP)	-	-	-	3.7	-	11.9	-	-
태국(타이,THA)	-	-	0.01	11.8	0.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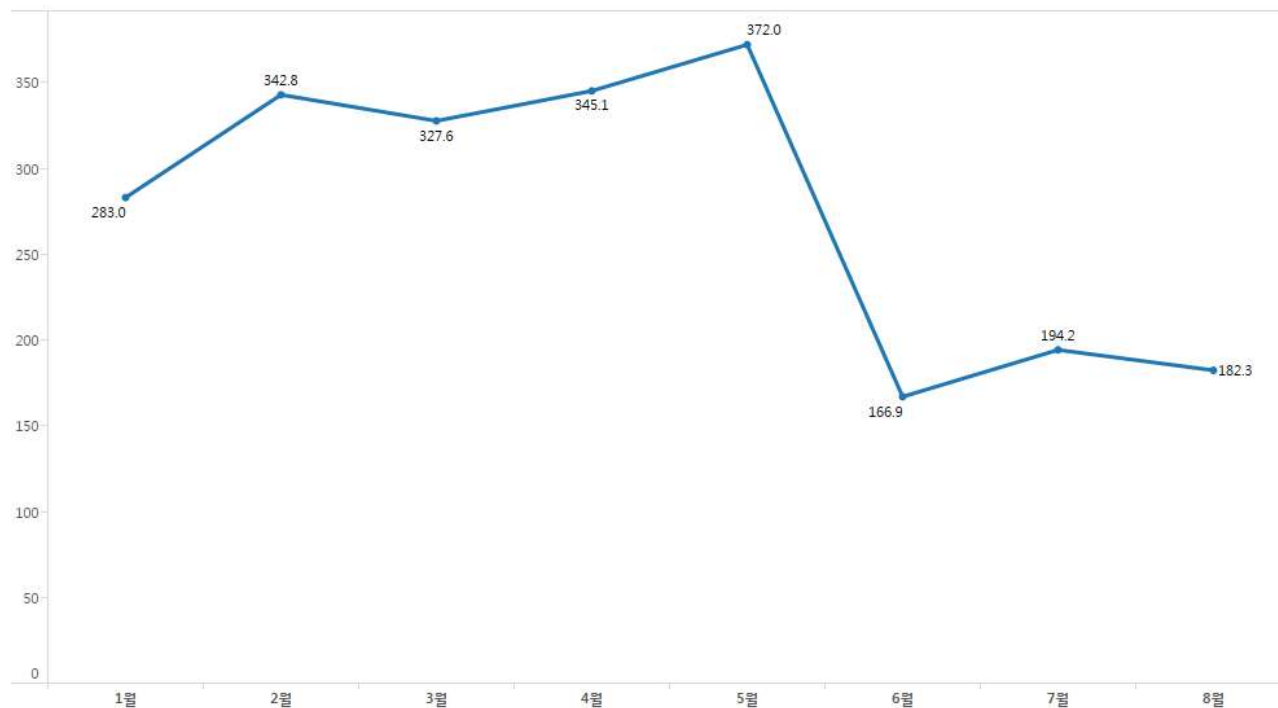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인천광역시 관광지별 외국인 유입인구 분석

6. 남동구 소래포구

1.1 시계열 분석 :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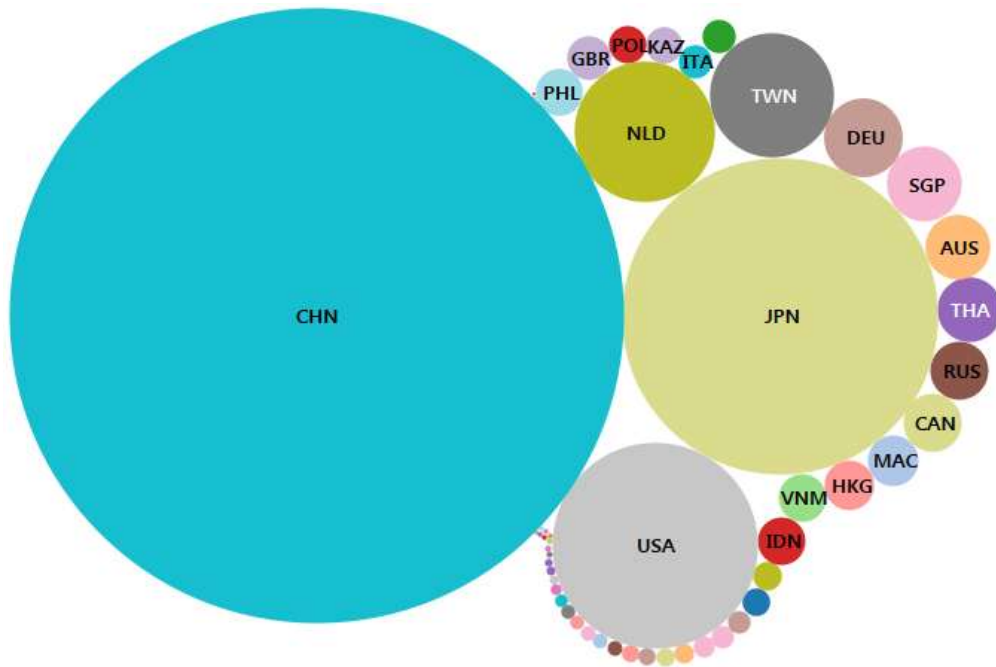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남동구 소래포구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과 2월 사이 증가, 3월 소폭 감소하나 다시 증가세를 타고 5월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됨.
- 6월의 경우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7-8월 소폭 증가와 하락을 반복해 비교적 일정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총합계
남동구 소래포구 외국인 유입인구(명)	283.0	342.8	327.7	345.1	372.1	166.9	194.2	182.3	2214.0

2.1 국적별 분석 :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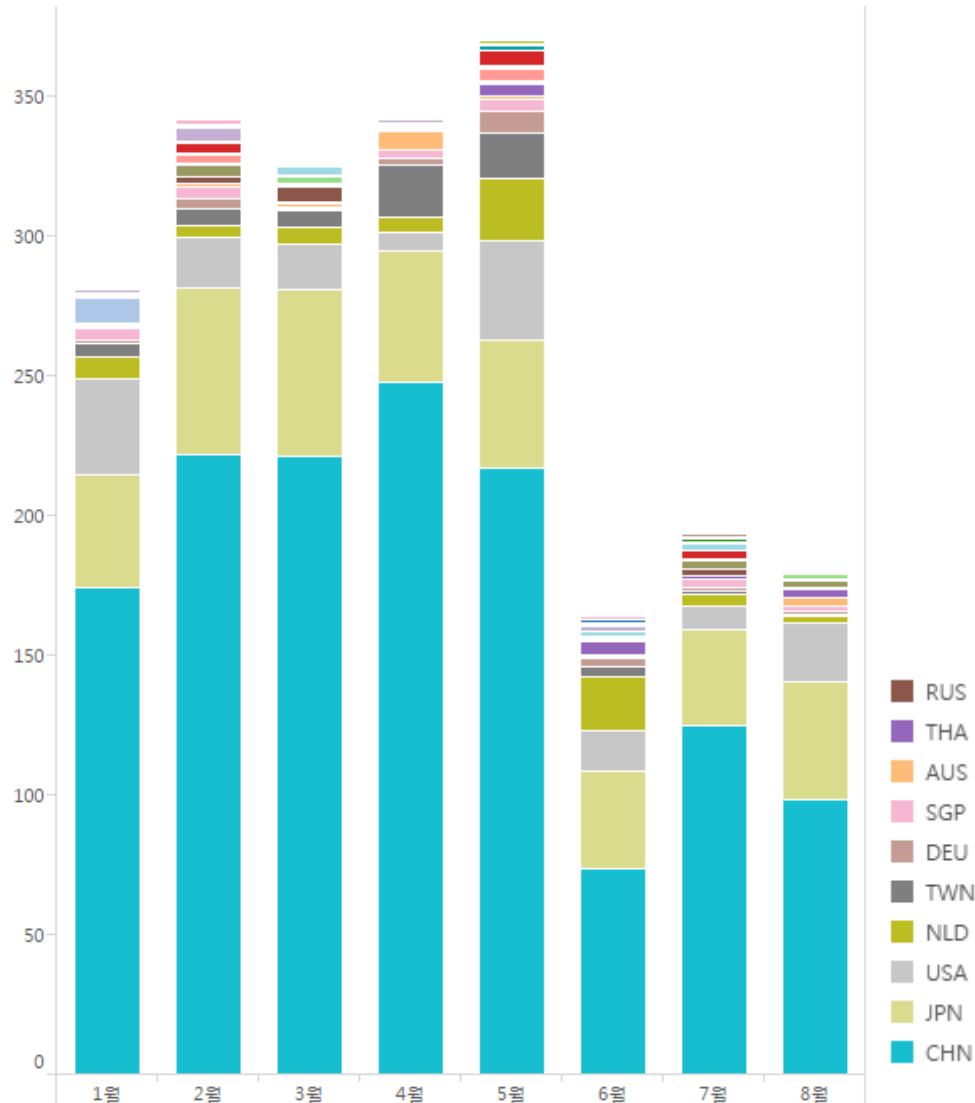
- 2015년 1월~8월, 남동구 소래포구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 1월~8월 동안 총 51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유입된 국적은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대만 순으로 나타남.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순위	국적	유입인구(명)
1	중국(CHN)	1376.9	20	이탈리아(ITA)	4.2
2	일본(JPN)	364.3	21	말레이시아(MYS)	4.1
3	미국(USA)	154.2	22	터키(TUR)	3.0
4	네덜란드(NLD)	71.9	23	프랑스(FRA)	2.8
5	대만(TWN)	56.1	24	쿠웨이트(KWT)	1.9
6	독일(DEU)	22.6	25	체코(CZE)	1.9
7	싱가포르(SGP)	20.4	26	인도(IND)	1.6
8	오스트레일리아(AUS)	15.6	27	스위스(CHE)	1.4
9	태국(타이,THA)	15.3	28	브라질(BRA)	1.3
10	러시아(RUS)	12.4	29	사우디아라비아(SAU)	1.1
11	캐나다(CAN)	12.3	30	핀란드(FIN)	1.1
12	마카오(MAC)	9.4	31	이스라엘(ISR)	0.9
13	홍콩(HKG)	9.0	32	그리스(GRC)	0.9
14	베트남(VNM)	8.8	33	괌(GUM)	0.8
15	인도네시아(IDN)	8.3	34	카타르(QAT)	0.7
16	필리핀(PHL)	8.1	35	방글라데시(BGD)	0.7
17	영국(GBR)	7.0	36	오스트리아(AUT)	0.6
18	폴란드(POL)	5.1	37	노르웨이(NOR)	0.5
19	카자흐스탄(KAZ)	4.9	38	스페인(ESP)	0.3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 2015년 1월~8월, 남동구 소래포구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국적을 월별 분석한 결과,
- 월 평균 28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됨.
- 매달 1위와 2위는 변동 없이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유입된 4월의 경우 전체 유입 외국인 중 7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임.
- 3위는 4월 대만, 6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달의 경우 미국으로 나타남.
- 그 외 월별 특징으로는 1월 마카오, 4월 오스트레일리아, 5월 네덜란드, 대만, 독일, 6월 미국, 태국 등 국적 외국인 유입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2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순위 비교 (상세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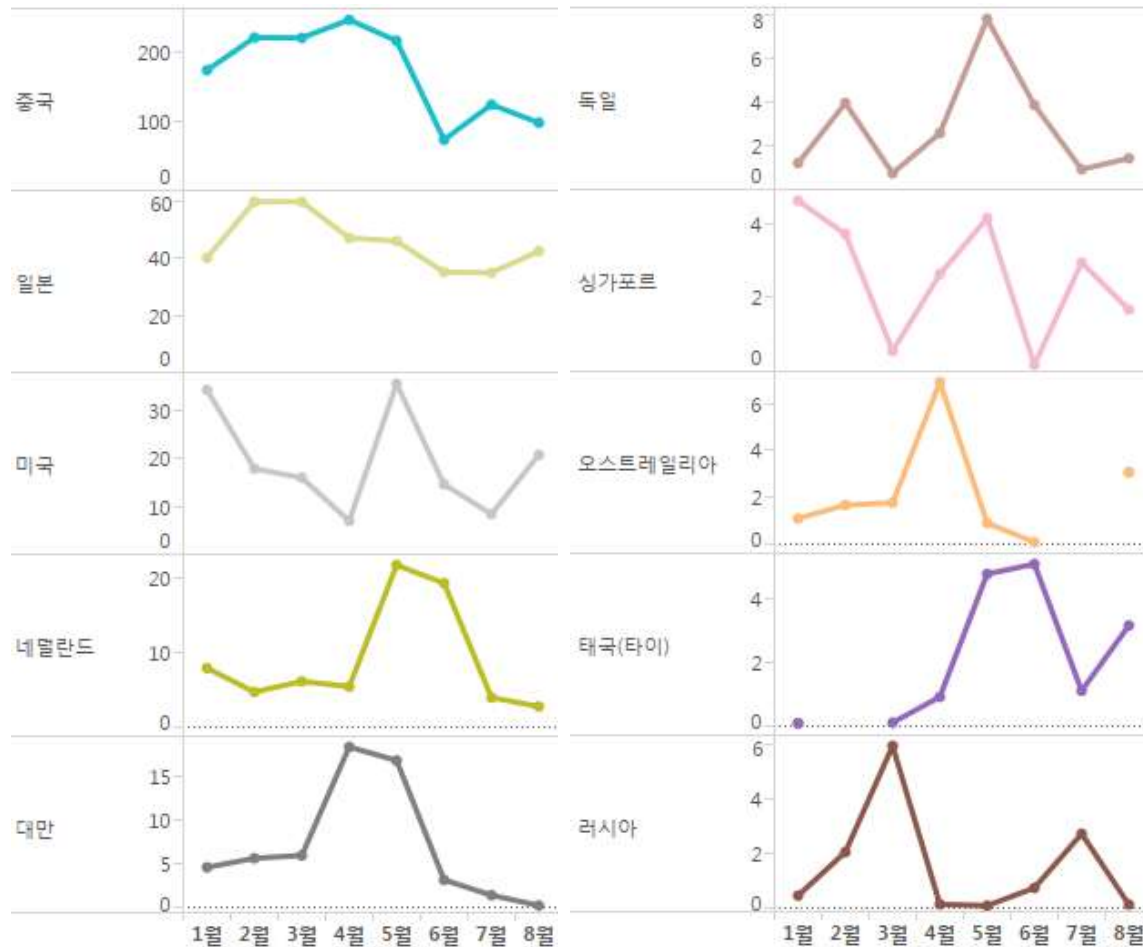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단위 : 명)

순위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1	중국 (CHN)	174.2	중국 (CHN)	221.5	중국 (CHN)	221.1	중국 (CHN)	247.3	중국 (CHN)	216.8	중국 (CHN)	73.4	중국 (CHN)	124.4	중국 (CHN)	98.2
2	일본 (JPN)	40.0	일본 (JPN)	59.6	일본 (JPN)	59.6	일본 (JPN)	47.0	일본 (JPN)	45.9	일본 (JPN)	35.1	일본 (JPN)	34.8	일본 (JPN)	42.3
3	미국 (USA)	34.2	미국 (USA)	17.8	미국 (USA)	16.0	대만 (TWN)	18.4	미국 (USA)	35.6	네덜란드 (NLD)	19.3	미국 (USA)	8.4	미국 (USA)	20.7
4	마카오 (MAC)	9.1	대만 (TWN)	5.6	네덜란드 (NLD)	6.1	미국 (USA)	6.9	네덜란드 (NLD)	21.7	미국 (USA)	14.6	네덜란드 (NLD)	4.0	태국 (타이, THA)	3.2
5	네덜란드 (NLD)	7.9	캐나다 (CAN)	5.0	대만 (TWN)	6.0	오스트레일리아 (AUS)	6.9	대만 (TWN)	16.8	태국 (타이, THA)	5.1	캐나다 (CAN)	3.2	캐나다 (CAN)	3.1
6	싱가포르 (SGP)	4.6	카자흐스탄 (KAZ)	4.9	러시아 (RUS)	6.0	네덜란드 (NLD)	5.4	독일 (DEU)	7.8	독일 (DEU)	3.9	인도네시아 (IDN)	3.1	오스트레일리아 (AUS)	3.1
7	대만 (TWN)	4.6	네덜란드 (NLD)	4.7	베트남 (VNM)	3.3	싱가포르 (SGP)	2.6	폴란드 (POL)	5.0	대만 (TWN)	3.2	싱가포르 (SGP)	2.9	네덜란드 (NLD)	2.8
8	영국 (GBR)	1.8	독일 (DEU)	4.0	필리핀 (PHL)	2.9	독일 (DEU)	2.6	태국(타이, THA)	4.8	영국 (GBR)	1.9	러시아 (RUS)	2.7	베트남 (VNM)	2.1
9	베트남 (VNM)	1.4	싱가포르 (SGP)	3.7	오스트레일리아 (AUS)	1.8	이탈리아 (ITA)	1.1	홍콩 (HKG)	4.3	필리핀 (PHL)	1.8	필리핀 (PHL)	2.3	싱가포르 (SGP)	1.7
10	독일 (DEU)	1.2	인도네시아 (IDN)	3.6	영국 (GBR)	0.9	인도네시아 (IDN)	1.0	싱가포르 (SGP)	4.1	체코 (CZE)	1.7	쿠웨이트 (KWT)	1.9	독일 (DEU)	1.4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 남동구 소래포구 관광지에 유입된 외국인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의 추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 중국의 경우 4월 가장 높은 유입량을 기록한 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6월의 경우 전월 대비 66%로 크게 감소, 8월에도 전월 대비 21% 감소해 감소 추세가 이어짐.
- 반면, 일본의 경우 상반기 높은 유입량을 기록하다 7월까지 소폭 감소,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월별 유입량의 변동은 크지 않은 편임.
- 그 외 미국, 싱가포르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W자의 추이 경향을 보이며, 네덜란드, 대만은 4-5월에만 유입이 급증했다 바로 급감하는 것이 특징적임.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2.3 국적별 시계열 분석 :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별 추이 비교 (상세 데이터)

▶ 월별 외국인 유입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적 (2015.01~2015.08)

전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변동 없음

(단위 : 명)

국적/기준년월	2015.01	2015.02	2015.03	2015.04	2015.05	2015.06	2015.07	2015.08
중국(CHN)	174.2	221.5	221.1	247.3	216.8	73.4	124.4	98.2
일본(JPN)	40.0	59.63	59.57	47.0	45.9	35.1	34.8	42.3
미국(USA)	34.2	17.8	16.0	6.9	35.6	14.6	8.4	20.7
네덜란드(NLD)	7.9	4.7	6.1	5.4	21.7	19.3	4.0	2.8
대만(TWN)	4.6	5.6	6.0	18.4	16.8	3.2	1.4	0.2
독일(DEU)	1.2	4.0	0.7	2.6	7.8	3.9	0.9	1.4
싱가포르(SGP)	4.6	3.7	0.6	2.6	4.1	0.2	2.9	1.7
오스트레일리아(AUS)	1.1	1.7	1.8	6.9	0.9	0.1	-	3.1
태국(타이,THA)	0.1	-	0.1	0.9	4.8	5.1	1.1	3.2
러시아(RUS)	0.5	2.1	6.0	0.2	0.1	0.8	2.7	0.2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분석 결과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1. 중구 연안부두 유람선

- 1월~8월 중 4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 4월 이후 6월까지 급락했다가 8월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
- 국적별 외국인 유입 순위 : 중국>네덜란드>일본>스리랑카>미국
 - 연안부두 유람선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중 88.5%가 중국 국적

2. 중구 월미도 유람선

- 1월~4월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이 유입, 4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하락, 8월에 소폭 증가
- 국적별 외국인 유입 순위 : 중국>대만>네덜란드>일본>그리스
 - 월미도 유람선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의 75.1%가 중국 국적

3.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 2월 이후 4월까지 외국인 유입인구가 증가, 6월까지 하락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
- 국적별 외국인 유입 순위 : 중국>일본>미국>이탈리아>네덜란드
 - 하반기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유입량이 급증(6월 대비 7·8월 유입인구 4배 증가)

분석 결과

※ 유럽에 속한 국가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다른 나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음 ※

4.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1월~4월 매달 꾸준히 증가해 4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입, 7월까지 급락 후 8월 다시 증가하는 경향
- 국적별 유입 순위 :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대만
 - 1월~8월 동안 총 71개 국적 외국인이 유입

5. 강화도 나들길

- 1월~4월 증가, 4월~7월 하락, 8월 급증(7월 대비 2.3배 증가)
- 국적별 유입 순위 :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영국 순
 - 1월~8월 총 30개 국적 외국인이 유입, 그 중 매달 유입되는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뿐

6. 남동구 소래포구

- 1월~5월 비교적 높은 유입량을 유지, 6월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뒤 일정 수준으로 유지
- 국가별 유입 순위 : 중국>일본>미국>네덜란드>대만
 - 중국 최고 유입량을 기록한 4월 이후 감소하는 경향(6월 전월 대비 66% 감소, 8월 전월 대비 21%감소)